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 참여 이주여성의 삶과 역량

평가보고서

2023년 3월

이현옥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부교수)

전미양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강소정 (연구조교)

목차

1. 서론	1
2. 한부모 이주여성현황과 지원정책	3
2.1 한국의 한부모 이주여성 현황	3
2.2 한부모 이주여성 선행연구	4
2.3 한부모이주여성 지원정책	6
3. 연구방법	16
3.1 기관장/사업운영자 면접	16
3.2 역량프로그램 참가자	17
3.3 본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이주여성	19
4. 연구결과	22
4.1 운영자의 관점에서 본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22
4.1.1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로직	23
4.1.2 운영자가 생각하는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의미	40
4.1.3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사회적 의미	44
4.1.4 향후 프로그램 고려사항	47
4.1.5 소결	50
4.2.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험	51
4.2.1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51
4.2.2 센터의 역할과 의미와 한계	63
4.2.3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역할과 의미와 한계	66
4.2.4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	75
4.2.5 소결	78
5. 결론과 함의	80
참고문헌	85

표 목차

표1.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13
표2. 한국여성재단 이주여성 지원사업	15
표3. 기관장 면접 정보	17
표4. 역량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18
표5.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 이주여성 기본정보	20
표6. 연도별 한국여성재단 사업목적	24
표7. 2019-2021 단체별 사업목적	25
표8. 2019년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27
표9. 2020년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28
표10. 2021년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29

BOX 목차

BOX1. 다문화가족지원법	8
BOX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9
BOX3. 한부모가족지원법	9
BOX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10
BOX5.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11

요약

1. 서론

90년대부터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정착이 증가하면서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이민자의 이혼은 2011년 11,495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누적된 한부모 가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인구 및 가족 장려 정책의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주로 한국어, 문화교육, 직업교육, 자녀교육 등과 같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그러나, 결혼의 해체를 경험한 결혼이민자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부모 이주여성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선주민 한부모의 어려움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며,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과의 긴밀한 소통속에서 기획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정책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정책은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한부모 가정지원정책의 체계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언급되는 등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부모 이주여성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미약한 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정책기본계획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모두 수혜대상을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 자녀의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정의를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은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기관장 및 당사자 심층면접으로 구성된다. 문헌조사는 한국여성재단 사

업보고서, 이주여성역량강화 사업의 파트너 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성남YWCA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들의 사업 목적과 내용, 참가자 정보, 단체별 프로그램 구성을 확인하였다. 각 단체에서 사업참여자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참가자의 국적, 연령, 자녀연령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자료와 비교하여 비중을 확인하였다. 심층면접은 크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장 또는 실무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연세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면접대상 선정과, 면접진행 과정, 이후 연구 자료 활용에 있어서 연구 참여의 자발성, 참가자의 서면동의 등과 같은 연구 프로토콜을 준수하였다.

4.1 운영자의 관점에서 본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4.1.1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의 로직

2019년부터 진행한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한부모 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부모이자 이주여성으로 경험하는 문제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여성재단은 이 사업의 목적을 크게 이주여성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이주여성과 자녀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원칙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1) 참여자 수요 중심, 2)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3) 참가자와의 언어소통, 4) 자발적 참여, 5) 자원의 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킹, 6) 운영상의 유연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참여자와의 소통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제시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방향에 따라 각 단체에서 사업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단체의 활동 연혁에 따라 모집되는 참여자들의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프로그램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든 단체들이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참여자의 욕구를 파

악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참가자 각각의 한국어 소통 수준이 다르고,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의 전달이 원활할 필요가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통번역 서비스가 항상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좋지만, 현장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이 자원활동으로 통번역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일방적으로 참가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한부모 이주여성 네트워크 등 자발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은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자원의 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한 단체 모두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해왔다는 점은 이 사업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기관별로 활동과 주요사업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미 운영해 왔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의 참가자를 발굴하고 모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이주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참가자를 찾거나, 쉽거나 상담을 받은 여성중에서도 참가자를 찾은 경우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해서도 다른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족에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단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내 다른 지원 조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족의 아이가 장학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거나, 당장 필요한 생활지원을 다른 비영리 조직이나 기업 후원과 같은 다른 자원을 연계하여 한부모 이주여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단체나 조직차원의 자원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역시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인적자원은 한편으로 가용자원을 동원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의 활용과정이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네트워킹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3) 운영의 유연성

생계부양자이자 양육자의 역할을 홀로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이자, 사회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약한 이주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업은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이라는 성격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참여자의 상황이 경제활동 여부, 입국시기와 언어능력, 한부모가 된 시기, 자녀의 연령, 자녀와 본인의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는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매번 참여자의 성격과 상황이 비슷하기 보다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복잡한 행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유연하게 변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지원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잡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한국여성재단의 간소한 행정체계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후원처인 동서식품의 정책 역시 이러한 유연한 운영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1.2 운영자가 평가하는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의 의미

기관장 면접을 바탕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의미를 크게 1) 운영자가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의미와 2) 사회적 의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운영자가 평가한 프로그램의 의미는 1)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자존감 회복의 강조를 통한 역량의 재정의, 2) 자녀와의 의사소통 역량강화와 같은 이주여성 당사자의 삶의 필요 충족, 3) 심리적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로 이주여성에게 숨쉴 곳/기댈 곳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4.1.3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1)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의제 형성

우선 사회적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을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이 처한 현

실과 어려움을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의 이중 수혜자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부모 그룹에서도 이주민 그룹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충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지역 단체 역량강화

여성재단의 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한부모 이주여성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은 단체들의 활동과 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한다. 인적,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많은 단체에서는 여성재단의 사업은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는 또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실무자 인건비 지급과 예산 사용의 유연성에도 관련이 있다. 실무자 인건비를 통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지나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실무자들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3) 변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관행 실험

앞서 논의했듯이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이라는 의제 발굴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의제와 정책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서는 앞서 논의한 여성재단 사업운영의 유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상당히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과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은 실제로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 지기가 어렵고,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관리가 어렵다. 게다가 방향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주여성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키워진 젠더와 인간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하여 단체들이 택하는 운영방식의 몇몇 사례들은 정부사업 틀 안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다. 예컨대 활동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시에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관행은 정부사업의 체계내에서는 실행하기 힘들다.

4.2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험

이 장에서는 이주여성한부모 당사자들 삶의 맥락에서 센터와 프로그램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술하였다. 4.2.1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자들은 경제적, 정서적, 건강 문제와 자녀 돌봄, 지지기반 부재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한 문제가 다른 문제의 원인이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문제를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한부모나 이주민으로서 지원 제도는 일정 수준 갖추었지만, 이들을 여전히 한부모와 이주민으로서만 위치시키는 사회였다. 이들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토로하였고,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삶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한부모이주여성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센터는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였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었고, 당사자가 창피해했던 경험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공유할 마음이 드는 공동체로 기능하였다. 이들은 센터에서 받는 배려와 우리 사회의 다른 주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차이점을 감각하고 있었다. 센터는 한부모와 이주여성이라는 자신들의 특수한 점을 이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주류의 전달체계에서 종종 들었던 주눅드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정, 아지트와 같은 장소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센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모두 긍정적 묘사한 반면,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보고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때때로 유익하였고 성실하게 참여했을 때 좋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참가 자체로 실질적인 자기발전 등의 변화를 꾀하거나 아주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환경에서 운영되었다. 소수지만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운영된다면 무엇이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견 역시, 프로그램 참가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무엇인가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반증하기도 한다. 소수의 여행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장에서 한정적인 시간에 이루어졌고, 한국 생활에 이미 익숙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수준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프로그램도 다수였다. 센터는 참가자들끼리 교류를 독려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가 한부모이주여성으로 경제활동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 다만, 제주도 여행을 포함하여 장시간으로 기획된 여행프로그램 이런 한계를 일부 해결하였는데, 장시간 “부대끼며” 서로를 이해할 시간, 스스로가 효능감을 느낄 만큼 무언가로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당사자의 경험은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희망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이들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 간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고, 휴식과 치유의 기회가 되는 여행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자주 언급하였다. 또한 당사자와 자녀가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제빵, 바리스타 등 구체적인 자격증 교육, 취·창업 교육을 희망하였다.

5. 결론

지난 4년간 진행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경험으로 사업이 보여주는 의미와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많은 연구나 정책보고서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험을 논의할 때,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 돌봄, 지지기반 부재로 나열되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분절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 자녀의 연령, 경제활동 유무, 건강상태 등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과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자존감 회복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도출된 하나의 의제이다. 이 목표가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들이 연결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대한 조건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평면적인 접근 일색인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사이에서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이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은 참가자의 생애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 이주여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면접참가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찰의 시간을 보낸 편이며, 전체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정도 혹은 이러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어려운 문제들은 지속되지만, 모든 한부모 이주여성이 이 어려움 속에 빠져 무기력하게만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 보고서의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논의할 때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이주시점,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2000년대 후반 초기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원정책은 다변화되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이주여성들의 생애주기 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은 이주민, 여성, 한부모 가정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과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의 필요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할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의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일방적인 대상화와 집단화에 대한 경계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혜자에 대한 대상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 집단은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하는가?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동원되었거나 대상화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거나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부모 이주여성들 간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과 우선순위 조차도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가자의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심리상담을 처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장 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참여자와의 소통과 필요를 반영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이후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자발성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이해: 실질적 필요와 전략적 이해 간의 균형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은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여성재단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은 단순히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한부모 이주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자발성과 참여자의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실질적 요구가 전략적 이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결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실제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부모 이주여성 중 일부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로 필요한 물품과 도움 때문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 자발적인 모임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로 단체가 개입을 통해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자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여성재단과 사업수행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제안 사항이 도출되었다.

- 1)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단체의 참여는 이러한 목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 이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과 사업수행 기관들이 사업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단지 문서상으로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고려하여 한부모나 다문화로 특정 지어지는 집단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접근에 대한 상호이해를 전제로 한다.
- 3)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도 결정된 내용이 하향식으로 전달되어 단체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속에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어젠다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4) 앞서 제시된 두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앞서 진행된 단체들의 프로그램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 전 기획회의와 다음 사업 기획을 위한 사업 후 평가회의의 정례화를 들 수 있다.
- 5)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사업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한국여성재단과 기부처인 동서식품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모델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 6) 한 단체가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사업기간은 1년 주기로 바뀌지만, 최소 3년간 한 단체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사업주기를 늘릴 수 없다면, 1년 주기의 사업을 평가에 기반해서 3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7) 현재 사업예산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는 어중간한 규모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와 사례공유가 필요하다.

1. 서론

90년대부터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정착이 증가하면서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이민자의 이혼은 2011년 11,495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누적된 한부모 가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인구 및 가족 장려 정책의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주로 한국어, 문화교육, 직업교육, 자녀교육 등과 같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그러나, 결혼의 해체를 경험한 결혼이민자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는 등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부모 이주여성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미약한 수준이다. 한부모 이주여성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선주민 한부모의 어려움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며,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과의 긴밀한 소통속에서 기획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2019년부터 한부모 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와의 소통을 통한 관계 개선, 사회적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19년부터 서울·경기·충북·전북 지역 총 4개 권역의 협력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협약을 맺고, 2020년 경남의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가 참여하면서 한부모 이주여성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은 언어, 취업, 육아를 주로 지원했던 기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달리, 지역의 맥락과 필요에 근거해 한부모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자녀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도 재단과 사업수행기관의 소통을 기반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이는 지역현장에서 문화 별로 상이한 이주여성의 현실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자녀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운 한부모 이주여성의 상황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는 기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취업 및 창업률, 수업 참가율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족도 조사나 참가율 등 기존의 성과평가 방식을 벗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하는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맥락과 구조를 살펴보고, 여성재단에서 지원한 한부모이주여성 프로그램이 전체 맥락에서 점하는 차별성과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기관장(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존의 결혼이민자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저출생 문제해결, 정상가족 유지, 노동수급 등과 정책적 수요 층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당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각 지역에서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가의 심층면접을 통해, 프로그램의 의미를 결혼이민자의 삶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역량강화의 의미와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넷째, 실무자와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향후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논의 지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한국의 결혼이민자 정책과 현황, 한부모 이주여성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을 정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수행된 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전체 맥락을 제시한다.

둘째, 한국여성재단 지원으로 2019년부터 이루어진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분석하고 한부모 이주여성지원 정책 및 사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사업수행이 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고, 재단과 사업수행 단체 간의 수평적이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구조 속에서 이러한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갖는 차별성과 의미를 평가한다.

넷째,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를 결혼이민자의 삶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기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가진 역량강화의 의미와 평가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역량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2. 한부모 이주여성 현황과 지원정책

2.1 한국의 한부모 이주여성 현황

1990년대 ‘농촌총각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한국계 중국인과 시작된 국제결혼은 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다변화되면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점차 국제결혼의 수는 점차 줄었지만, 혼인귀화자는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지난 10년간 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등락이 있었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결혼은 2011년 30,695건에서 2020년 16,177건으로 약 14,500건 이상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혼인수도 감소하였는데,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최저점인 7.4%, 2019년 최고점인 10.3%를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14,450건에서 2020년 8,685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이혼의 감소폭보다 크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6%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20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누적합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조사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누적 여성결혼이민자는 136,668로, 2009년 108,928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국적별 규모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전체 결혼이민자의 63%를 차지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구성은 부부+자녀 가구 35.5%, 부부 가구 30.0%, 한부모 가구 10.9%, 1인 가구 8.3% 등으로 나타난다. 이혼, 사별 등으로 결혼이해체된 비율은 약 8.6%와 3.2%이며, 이들의 평균 결혼 유지 기간은 8.9년이다.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는 43.6%,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는 27.2%, 3년 미만인 경우는 19.2%이다(최윤정 외, 2022, p.94). 평균 결혼 유지기간까지 고려하면 한부모 이주여성의 과반 이상이 10년이상 장기간 한국살이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2021년 현재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의 고용율은 71.1%로 전체 결혼이민자 고용율은 60.8%보다 높은 편이다(최윤정 외, 2022, p.258). 직종별로는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는 단순노무가 40.1%, 서비

스가 28.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이 12.4%, 기능원이 8.9%, 판매종사자가 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4% 기타 2.5%를 차지한다(최윤정 외, 2022, p.268). 2021년 현재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다문화 가정 중 배우자와 이혼, 별거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한부모 가정이 44.6%을 차지한다(최윤정 외, 2022, p.82). 이는 실제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을 뜻하며,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간접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의 93.3%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자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9.5%, 수령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지속적으로 받는 비율은 21.4%에 불과하다. 전체 결혼이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6.4%이다(최윤정 외, 2022, p.63).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논의에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국적취득 여부, 자녀의 국적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2.2 한부모 이주여성 선행연구

한부모 이주여성 연구는 대체로 결혼 해체의 원인분석, 해체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의 다양한 양태 정리, 현재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부모 이주여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가족의 형성과 해체 원인이라는 인구학적 분석 (정지윤 2011, 김영혜 2017) 2) 심층면접에 기반한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임춘희 2014, 김강남 2016, 오혜정 2017) 3)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활동 (김복태·최천근 2020, 한가은 2021), 자녀돌봄 (어경준 2018), 사회적 배제 (오성은·김한성 2020) 등 한가지 주제에 집중한 심층분석 4)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제도 분석 (박송이·강혜린·문영민 2020, 김선숙·왕경수 2021; 최수안·김영순 2021; 김기화 2021) 및 정책의 맥락과 의미에 대한 연구 (이현주 2013); 5)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경험과 성장에 대한 의미화 (박미정 2015, 이춘양 2021).

초기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형성과 해체라는 인구학적 관심에서 이루어졌다 (정지윤

2011, 김영혜 2017). 정지윤(2011)은 결혼이민자의 이혼원인을 분석하면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김영혜(2017)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이혼과정을 분석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한부모 이주여성의 심층면접을 통한 경험을 드러내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가장 많이 조명된 부분은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다. 임춘희(2014)는 이혼 후 재혼한 4명의 결혼이민자의 재혼경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부모로 지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기술하였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한부모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적한다. 김강남(2016)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이 당면한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문화적 문제의 본질과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한다. 오혜정(2017)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7명의 결혼이민자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현상과 원인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 중 경제활동, 자녀교육, 사회관계망, 사회적 배제, 빈곤, 사회서비스 등 한 측면에 집중하여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통계를 기초로 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빈곤 실태 분석(김복태·최천근 2020),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활동 간의 관계 분석(한가은, 2021)이 진행되었다. 어경준(2021)은 한부모 모자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경험과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오성은, 김한성(2020)은 통계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논의할 때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제가 누적적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제도 경험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박송이·강혜린·문영민 2020, 김선숙·왕경수 2021; 최수안·김영순 2021; 김기화 2021). 모든 연구가 정책리뷰와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현주(2013)는 정책의 맥락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이 국가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결혼이민자들의 경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송이·강혜린·문영민(2020)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면접을 기반으로 한부모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혹은 국적 취득여부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언급한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춰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선숙·왕경수 2021; 최수안·김영순 2021)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나타난다(김기화 2021).

결혼이민자의 삶에서 한부모가 되어 자립하는 과정이 접하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도 눈에 띈다 (박미정 2015, 이춘양 2021). 박미정 (2015)은 이혼을 경험한 6명의 결혼이민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이혼과정을 “생존과 미래를 위한 권리주체로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또한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정착 지원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혼 혹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춘양(2021)은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결혼해체의 원인분석, 한부모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이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리뷰와 정책방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적은 수의 심층면접을 통한 경험의 분석 수준 역시 현상학적 분석에 머물러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지원사업이 여전히 시작단계에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역량강화의 개념이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설계와 평가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책적 맥락과는 다른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설계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한부모 이주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역량강화에 대한 재개념화와 사업평가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장에서는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각각의 삶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사업평가 구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역량강화”의 의미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가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3 한부모이주여성 지원정책

1) 결혼이민자 정책

결혼이민자 정책은 크게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정책의 맥락과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대표되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정착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은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정책의 상당부분이 정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정책기본계획 2010-2012이 마련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 총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와 61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특히,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의 세부과제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외에도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는 이러한 과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2015년 현재 15개 중앙부처에서 115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다 (김유경 외 2016).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차원의 지원이 언급되어 있으며,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가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현재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한국어 교육, 통번역 및 상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처(2018)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정착지원사업 예산은 585억이었으며, 2022년에는 809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포함하는데,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자격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에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성정책연구원, 2023).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 이주여성과 관련된 법체계는 크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루는 한부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와 같이 지극히 일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언어나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OX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정보센터(2022)

나.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2018-2022)에서는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가족관계 갈등·사별*로 1인 가구, 한부모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한국 체류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부모 증가 등 다양한 가족관계 발생에 따른 지원 및 가정폭력 등에 대응하는 인권 강화 방안도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8, p.6).

이전까지의 정책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문화 가족 특별분양 자격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BOX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 및 양육비 지원 단계적확대
 -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 * 이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자녀 근로 장려금 신청가능

2.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자격 부여
 - * 현행)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 - 주거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분양조건에 대한 홍보 등 정보안내 강화

출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 p. 15

2)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

가. 건강가정기본법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제21조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족진흥원에서는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 자녀의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의 정의를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은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OX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 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출처: 한부모가족지원법(2022). <https://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BOX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 15., 2021. 4. 13.>

출처: 국가법령센터(20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나. 건강가족기본계획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2021-2025)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지원이 주요과제로 부각되면서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자녀양육, 생활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 된 이후 경험한 변화 중 가장 큰 것이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 80.2%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과 아동의 성장을 위한 복합적 지원 필요하며,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서는 “탈기초수급으로 자립한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 및 자녀 교육비”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지속적 확대 필요”하며,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구 빈곤을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여성가족부 2021 p.35).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경제자립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부모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지방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도 한부모 가족과 함께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따로 언급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이면서 한부모 가족인 한부모 이주여성은 따로 언급되지 않는다.

[BOX5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한부모 가족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대상아동양육비 지급 등 지원 확대('21.5월~)
 -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24세→만34세로 확대('21.5월~)
 -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20년 연 5.41만원)를 교육급여 학용품비(연 8.3만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21년~)
- 가족특성별 자립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확대 및 내실화 추진(여성가족부)
 - 실태조사 등을 거쳐 청소년한부모의 정책욕구를 반영, 초기상담, 취업 학업 돌봄 및 주거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결혼이민자 취업 등 자립 여건 확보를 위한 지원(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강화
 - * 결혼이민자 취업기초소양 교육, 구직자 발굴시 워크넷 등록 및 새일센터 연계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대상 일 경험 지원,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국민취업지원제도('21.1.1. 시행)' 등 직업훈련·취업 연계 지원사업에 가족사유 반영(고용노동부)
 - 직업 훈련 과정 중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한 훈련 불참(예: 자녀입원 등)시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

*** 가족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지역사회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마련(여성가족부)
 - 탈시설화 추세 반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선방안 및 다양한지역사회 주거 지원 방안 모색
 -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방안(분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
 -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 대상자 확대(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 LH공사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한부모 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물량 확보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거지원 자격대상 소득 기준 완화(60%→100%) 및 임차보증금 단가 현실화
 - * 입주자가 근로활동으로 정기적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기준 60%를 초과할 수 있으며, 현 임차보증금 수준에서는 관리비(월세) 비중이 높아 경제적 부담
 - 공공주택 입주자격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공급 추진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검토
 - 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지원사업 추진(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주택자금부담경감을 위한 특례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 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이혼 전·후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 이혼 전·후 자녀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여성가족부)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통해 이혼 전후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확대 및 전문성제고
 -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등 관련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법원행정처)
 - 양육비 관련 정보전달형 교육 및 부·모간 양육비 관련 협의사항확인절차 강화, 조정조치 명령(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등) 활성화 등
 - *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지급계획서 작성, 양육비 미지급시 집행방법 및 법률구조절차, 채무자가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
 - 한부모·조손가족 등 아동청소년의 학습·정서 등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수행기관 및 지원 대상 지속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조)부모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교육 및 자조 모임, 가족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 * ('20년) 79개소,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다음 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주로 초기지원에 머물러 있고,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비 지원은 추가아동양육비를 포함해서 30만원 이하로, 도움은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수준이다.

[표1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연 500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 공단

출처: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재가공.

3) 한국여성재단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이 체계를 통해 한부모 이주여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일정 정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국적, 체류자격, 그리고 아이의 국적은 주요한 조건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 이주여성은 이러한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장 필요하다고 분석된 경제자립, 양육비 지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들은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건강가족기본계획에서 사회적 배제나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해결방안은 여전히 대국민 교육 등에 머물러 있다. 이 중 정책지원 대상을 직접적으로 만나 진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 안에서 공모를 통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자원 역시 정부재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재원 외에도 다른 자원들도 존재하는데, 한국여성재단이 진행하는 사업들의 자원은 아래 표와 같이 민간재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여성재단 뿐만 아니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도 S-OIL의 지원을 받아 이주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를 퇴소하는 생필품 법률상담 지원,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 사업과 비교해 차이점이 있다면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이후 기관장 면접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점과 비용처리에 있어서 행정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사업 내용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예컨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수혜자에게 각종 증빙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지원을 받는 쪽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쪽의 편의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후원처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에서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수행할 때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뢰에 바탕한 유연성은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무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이 과도한 감시와 행정업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담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고민과 실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2 한국여성재단 이주여성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후원처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	2019-2022	· 이주여성지원단체 프로그램 지원 · 한부모 이주여성가족 자조 프로그램 지원	동서식품
이주여성 자립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2018-2021 2018-2019	·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 트레이닝 및 솔루션 지원 · 총 25개 업체, 124명 선정/지원 · 사업 평가 연구사업	JP모건
이주여성리더 발굴사업	2021	· 이주여성 인권향상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이주민과 선주민 통합,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 사업비 및 단체 활동가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9개 기관, 3133명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	2021	· 꿈장학금 사업: 총 38명, 중학생 연간 120만원, 고등학생 연간 150만원 지원 · 임직원 꿈멘토링 사업: EY한영 멘토와 장학생을 9개 조로 구성, 사전교육, 멘토링, 자율멘토링 진행	EY한영

출처: 한국여성재단, 연구진 작성.

요컨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정책은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한부모 가정지원정책의 체계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는 등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부모 이주여성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미약한 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정책기본계획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모두 수혜대상으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 자녀의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정의를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은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기관장 및 당사자 심층면접으로 구성된다. 문헌조사는 한국여성재단 사업보고서, 이주여성역량강화 사업의 파트너 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성남YWCA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들의 사업 목적과 내용, 참가자 정보, 단체별 프로그램 구성을 확인하였다. 각 단체에서 사업참여자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참가자의 국적, 연령, 자녀연령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자료와 비교하여 비중을 확인하였다.

심층면접은 크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장 또는 실무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연세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면접대상 선정과, 면접진행 과정, 이후 연구 자료 활용에 있어서 연구 참여의 자발성, 참가자의 서면동의 등과 같은 연구 프로토콜을 준수하였다.

3.1 기관장 및 사업담당자 면접

첫 번째 집단은 한국여성재단의 이주여성역량강화 사업의 파트너 기관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성남YWCA에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운영한 기관장 또는 실무자이다. 각 파트너 기관은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주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주체로, 기관장 또는 사업담당 운영자 5명이다. 연구진은 7월 사업수행 기관 회의에 참여하여 연구 프로젝트와 면접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후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다. 면접은 7월부터 10월까지 대면 혹은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기관장 또는 실무진 면접의 경우 대부분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되었지만, 대면면접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3가지 면접 주제와 세부 질문을 담고 있는 토픽가이드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했던 역량 분야, 차별성, 고충을 파악하였다(별첨1). 심층면접은 주요 내용을 전사한 후,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ATLAS TI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1차 적으로 개방 코딩을 진행한 다음 코드를 분류하고 위계를 잡아 최종 코드를 도출하였다.

[표3 기관장 면접 정보]

	센터	지역	직함	면접날짜
N1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	대표	22.07.8 (대면)
N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대표	22.09.16(비대면)
N3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	소장	22.09.23(비대면)
N4	한국성남 YWCA	성남	총장	22.09.23(비대면)
N5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	대표	22.10.14(비대면)

3.2 역량프로그램 참가자

본 연구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트너 기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각 단체들을 통해 역량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이주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에 총 283명의 한부모 이주여성이 참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성남 32, 충북 46, 전주 131, 경남 30, 서울 44명이었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일본,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단체별로 참가자의 출신국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와도 관계가 있다. 예컨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중국 출신의 참가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남 지역의 경우 베트남 출신의 참가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충북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참가자도 눈에 띈다. 이 역시 지역별로 출신국적 분포가 다른 것이 반영되었고, 동시에 단체의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성격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주민 연령은 27세부터 57세까지 다양하였으나, 주로 30대와 40대가 중심이 되어있다. 자녀 수는 한 명이 가장 많았고, 두 명, 세 명, 네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었다. 간혹 자녀가 없는 참가자도 있었다. 자녀의 연령 역시 2세부터 26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겹치는 6세에서 14세

사이가 많았다. 이는 일부 단체에서는 참가자를 모집할 때 초등학생으로 연령을 제한한 이유도 있지만,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이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은 전체 50.6%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경제활동의 경우 모든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정보가 공유된 58명의 당사자 가운데 10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8명 중 23명이 공장 등에서 생산직에 근무하고 11은 식당, 나머지는 영어 강사, 보험, 바리스타 등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 형태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으나 일부는 식당 아르바이트, 혹은 전자회사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용의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의 고용율은 71.1%로 전체 결혼이민자 고용율은 60.8%보다 높은 편이다. 직종별로는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는 단순노무가 40.1%, 서비스가 28.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이 12.4%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직종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순노무 34.4%, 서비스 20.4%에 비해서는 단순노무와 서비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국적별로도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데 중국(한국계)이 64.2%, 베트남이 61.6%, 필리핀이 61%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는 48.6%, 태국은 42.5%에 불과하다. 역량프로그램 참가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4 역량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출신국가	인원	한국 거주 기간	인원	직업	인원	센터별 참가자	인원
필리핀	25	5년 미만	2	단순노무종사자	27	한국이주여성센터	44
몽골	7	5년 - 10년 미만	10	서비스 종사자	15	충북이주여성 인권센터	46
베트남	65	10년 - 15년 미만	5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강사, 번역사)	11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28
태국	7	15년 이상	56	전업주부	50	한국성남YWCA	42

대만	2	정보없음	67	사무종사자	16	경남이주여성 인권센터	30
중국	51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7		
일본	5			무직	6		
키르 기스스탄	4			자영업	2		
캄보디아	14			자활근로	2		
우즈 베키스탄	3			학생	2		
라오스	2			정보없음	52		
러시아	1						
정보없음	4					계	190

출처: 센터별 자료 취합 후 연구진 작성.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2019년 미포함.

3.3 본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이주여성

본 연구는 참가자 정보를 기초로 출신국가의 최대 변량을 주어 면접 대상자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당사자의 연구 참가 의사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참가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면접은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기관장 또는 실무자 면접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기관장(실무자) 면접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가한 참가자 3-4인을 국적에 최대 변량을 주어 추천을 받았다. 2) 해당 기관장(실무자)이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물은 후, 허락하는 참가자의 정보를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3) 연구팀은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연구 주제와 면접 질문을 설명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 이주여성 당사자는 [표5]와 같다. 면접 파일럿 조사와 본 면접으로 구성하였다. 파일럿 면접은 2022년 7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3명의 당사자와 포커스그룹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면접 토픽가이드를 실험하고 개선하였다. 본 면접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자신의 삶과 역량,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경험과 같은 3가지 면접 주제와 세부 질문을 담고 있는 토픽가이드를 활용하였다(별첨 2).

[표5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 이주여성 기본정보]

	출신국가	출생연도	자녀수	자녀연령	공공부조수급여부	입국연도	한부모가정진입연도	진입계기	직업정보
1	베트남	1987	2	초교	X	2009	2012	사별	회사원 (식품회사)
2	베트남	1989	2	초교	X	2009	2019	이혼	정보없음
3	베트남	1971	2	정보없음	X	2006	2017	이혼	정보없음
4	중국	1976	1	12	O	2002	2007	이혼	무직
5	중국	1975	1	17	X	2008	2010	이혼	프리랜서 (통역, 상담보조, 식당)
6	중국	1985	1	12	O	2009	2018	이혼	청소
7	중국	1976	1	10	O	1997	2014	이혼	무직
8	일본	1970	1	9	O	2014	2018	사별	아르바이트
9	베트남	1985	2	15,12	O	2005	2012	이혼	무직
10	태국	1987	1	미취학	X	2014	2020	미등록	공장
11	중국	1970	3	정보없음	O	2004	2021	이혼	아르바이트

12	필리핀	1968	3		O	2000	2015	이혼	영어강사
13	중국	1985	2		X	2007	2014	이혼	식당 회계

출처: 연구진 작성.

본 면접은 모두 대면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자는 연구팀 중 최소 2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3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면접자가 주로 선정하였는데, 집으로 연구진을 초대해주는 경우 거주지에서, 또는 당사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의 조용한 회의실이 있는 카페에서 수행되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진은 참여자에게 면접에 대한 녹음 허락을 받고, 연구의 목적과 예상되는 이익과 불이익,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별첨 3)와 자필서명을 받았다. 영어가 모국어인 한 참가자와 한국말 소통이 어려운 다른 한 참가자에 한해, 면접의 일부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통역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면접자료는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접이 완료된 후, 녹음 파일은 Clova(클로바)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전사한 후, 연구팀에서 2차 전사하였다. 전사된 원고는 ATLAS TI를 활용하여, 1차 개방 코딩을 진행한 다음 코드를 분류하고 위계를 잡아 최종 코드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운영자의 관점에서 본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전면적으로 떠오른 저출산과 돌봄, 저성장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 충족시키는 맥락에서 구성되어 왔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써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정책은 초기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이 늘어나고, 이혼, 사별 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면서 한부모 가족인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한 양육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부모 가족 전반에 대한 자립지원, 양육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부모이자 다문화 가족인 한부모 이주여성에 경험하는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재단 지원으로 2019년부터 이루어진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분석한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의 정책담론의 맥락에서 내용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역 조직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수직적 구조로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 공동체를 도구화 하는 방식에서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긴장관계를 파악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에서 나타난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은 한부모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공동체 조직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기관장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정부중심의 이주민 지원사업 운영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이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내용에 있어서는 운영구조와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견인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4.1.1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의 로직

1) 프로그램 목적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이주여성 권익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9년부터 진행한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한부모 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부모이자 이주여성으로 경험하는 문제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여성재단은 한부모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한편으로 한부모 가족으로 경험하는 “생활고와 자녀돌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으로 “언어, 문화적 차이와 차별, 자녀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위기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여성재단은 이 사업의 목적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1) 이혼·별거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자녀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2) 엄마,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개선 및 쉽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정신적 빈곤 해소 3) 참여 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연결 기반을 마련.

2019년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참여하여 이 사업을 성남, 전주, 청주,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여성재단이 제시한 사업 목표는 각 단체에 반영되어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 이주여성과 자녀 관계 증진을 포함하여, 한부모 이주여성 사례 발굴 및 지원과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사업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한부모 이주여성 발굴 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정서적 심리적 지원 외에도 한부모 이주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역량강화”로 사업목적을 재정의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이주여성센터의 경우, 한국 여성재단의 사업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속에서 문화적 학습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표6 연도별 한국여성재단 사업목적]

연도	사업목적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별거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자녀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 엄마,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개선 및 쉽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정신적 빈곤 해소 ➢ 참여 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연결 기반을 마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및 자녀 역량강화 ➢ 이주여성 지역네트워크 강화 ➢ 이주여성 지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이주여성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 접근·활용·생산 능력 증진 ➢ 이주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주여성과 자녀의 주체성과 자립 지원 ➢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 도모, 위기 상황에 대처할 기반 마련

출처: 2019-2021 한국여성재단 최종발표회 자료.

2020년부터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가 참여하여 서울·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까지 총 5개 권역의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단체가 한국여성재단과 협약을 맺어 다문화 한부모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0년의 사업목적은 “이주여성 및 자녀 역량강화”, “이주여성 지역네트워크 강화”, “이주여성 지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로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된다. 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자녀와의 소통이 이주여성 및 자녀 역량 강화로 포괄되고, 이주여성의 자발적 활동과 상호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여전히 중요한 사업목적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역량강화를 목적에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단순히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라고 밝힌다. 이는 2019년 사업 진행 후 나타난 각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참여자의 욕구 그리고 지역적 맥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이 다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020년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목적이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의된 것에 비해, 각 단체의 사업목적은 보다 구

체적으로 기술되었다. 각 단체의 사업목적은 2019년의 사업목적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2021년에는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목적에 디지털 역량강화가 새롭게 추가되고 이는 각 단체의 사업목적과 프로그램에 반영이 된다.

[표7 2019-2021 단체별 사업목적]

참여 단체	2019	2020	2021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센터	1. 한부모 이주여성 사례 발굴 및 지원 2.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3.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 관계 증진	1. 이주여성이 수혜자에서 벗어나 지원자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발굴하고 지원 연계를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역량 강화한다. 2.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면서 젠더 폭력과 노동자 권리 등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정신적 회복과 더불어 역량강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으로 능동적인 이주여성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한다. 3. 그동안 가정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어 자녀와 소통에서 힘들어했던 한부모 이주여성이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을 위한 목적에 있다.	1.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 디지털 역량강화 2. 한부모 이주여성이 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 3.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 관계 향상 4. 한부모 이주여성 네트워크 확대
충북 이주 여성 인권 센터	1. 한부모 가정이 된 이주배경 가정을 중심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도전하고, 함께 희망이 있는 삶을 향한 도전을 지향한다. 2.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게 된 경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며 문화적 학습을 통한 행동의 변화	희: 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일상의 회복과 가꾸어 가기 로: 편견과 차별에 맞서 한 발자국 나아가기 애: 정서적 유대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좌절, 분노, 불안 회복) 락: 평등한 관계로 거듭나기(사회적 지지 획득하기)	1. 이주여성들의 지친 일상의 회복을 통해 함께 하기 2.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선에 지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 3. 객관화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재조명하기 - 미디어교육 4. 평등한 관계로 거듭나기 (사회적지지 획득하기) 5. 생활 속 이슈 콘텐츠화, 영상 제작활동으로 소통의

	3.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고립감을 낮추고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네트워크 만들기에 도전하여 이웃으로 사회적 지지로 인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확장 6.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대처능력 및 지원기관 인식시키기
아시아 이주 여성 센터		1. 결혼이주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동작, 음악, 미술, 만들기 등 통합예술치료로 창조적이고 다각적인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내면의 감정과 상처들을 표현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2. 통합예술치료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하여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 한부모 이주여성 가장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디지털을 통한 정보 능력 접근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을 둔다. 2. 자격증 과정을 통해 심리치유와 함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남 YWCA	1. 심리,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지원 2. 교육, 활동을 통한 엄마-자녀 관계 개선 3. 참여 가족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서적 위로, 안정도모 4.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가정내 고민을 덜어줄 기반 지원		1. 이주여성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 접근 및 활용 능력을 증진시킨다. 2. 이주여성이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안정을 도모한다. 4. 엄마-자녀 관계 개선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준다.
경남 이주 여성 인권 센터	해당사항없음		

출처: 사업수행기관 사업보고서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2)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와 같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자녀교육과 소통에 관한 프로그램, 기타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 여행, 문화활동 등 자녀와의 소통 및 다른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친분을 쌓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물품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사업목적에 근거해 연구자가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이 각각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어렵다. 2019년 모든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한부모 이주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와의 소통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도 소통여행은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 자녀와의 소통, 네트워킹, 여가활동 등 앞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프로그램은 이주여성 74명 자녀 66명으로 총 130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 프로그램에서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진단, 우울증 관리부터, 이에 도움이 되는 예술활동, 원예, 마사지, 운동 등 보다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동법, 젠더폭력, 인권교육, 수납정리 등 노동시장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이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을 포함하여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쉽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참가자가 105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에도 계속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재단의 제안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120명이 참여하였다.

[표8 2019년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단체
심리적 정서적 안정	교육(엄마: 감정코칭/아이: 미술치료)	성남YWCA
	이주여성 교육 및 상담(집단상담, 부모교육) 자녀 미술치료 및 체험교육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이주여성 집단상담 ‘엄마를 부탁해’ (집단상담)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자녀교육 및 의사소통	엄마-자녀 관계개선(워터파크, 영화관람, 직업체험)	성남YWCA
	이주여성-자녀 프로그램(미술관, 직업교육, 박물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및 교육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 가족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짜궁가족모임, 평가회)	성남YWCA
	제주 소통여행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 이주여성 사례 발굴 및 지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출처: 사업수행기관 사업보고서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표9 2020년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단체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집단활동, 말하기 대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망나무 꾸미기(내적욕구탐색) 스트레스 테스트, 우울증 관리 힐링 월예(생화 리스 만들기) 점핑운동	성남YWCA
	소매틱 마사지(아로마오일, 손본뜨기) 힐링트리통합예술치유(손 채색 및 꾸미기) 푸드테라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애니메이션 시청(다문화) 움직임을 통한 신체인식 가면과 이면의 얼굴(감정표현하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기타 교육	젠더폭력예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노동법 알아보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 인권교육 취업준비 교육 영화로 보는 여성주의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부모교육	성남YWCA
	자기방어훈련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옷장, 냉장고 정리수납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자녀교육 및 의사소통	자녀와 소통방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함께 어울림(동화놀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직장인 대화법 및 소통교육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 가족 네트워크	한부모 이주여성 사례 발굴 및 지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모임 지원(짜궁 가족 식사 지원)	성남YWCA
물품지원	생필품 및 학원비 지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출처: 사업수행기관 사업보고서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표10 2021년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단체
심리적 정서적 안정	미술치료, 원예치료	성남YWCA
	토닥토닥-몸과 마음의 치유 (자기신체인식하기, 인내의 춤, 정서탐색, 자화상 꾸미기 등)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역량강화 /기타교육	스마트폰 활용 JUMP (미디어생활, 지도, 키오스크, 가짜뉴스, 영상만들기 등) 부모교육 JUMP (성교육, 학대예방교육, 긍정교육, 정서교육 등)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역량강화교육 (아동학대예방,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성폭력 예방 등)	성남YWCA
	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 폭력예방, 성희롱예방, 디지털 폭력 등) 부모교육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스마트폰, ZOOM, 영상만들기 등) 역량강화 자격증 도전기 (목공예, 전사공예, 커피공예, 한지공예 등)	
	자녀프로그램 (점핑운동, 라탄공예, 개인정보보호, 목공예)	성남YWCA
	미디어 교육 (편집어플 익히기, 기획/촬영, 편집, 공유 등)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감수성키우기, 지원기관알기 등)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디지털 범죄예방, 영상 만들기, 가족 사진 촬영 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녀교육 및 의사소통	토요돌봄학교(체험학습, 지역체험자원공간 방문)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엄마-자녀 프로그램 (가족사진 촬영, 가족 나들이 등)	성남YWCA
	부모 역량강화 교육 (자녀의 발달 단계 특성 이해, 의사소통방법 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 가족 네트워킹	한부모 이주여성 사례 발굴 및 사례워크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물품지원	필요 물품 및 교육비 지원	성남YWCA

출처: 사업수행기관 사업보고서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여성재단과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목적에 공유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2019년 사업을 진행한 이후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목적과 방향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이는 진행된 사업을 바탕으로 단체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재정의 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여성재단에서는 사업 목표로 디지털 역량강화를 제시 하였다.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제안되었다.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논

의는 현장의 단체들과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상황에 맞춰 단체들은 기존에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합하여 운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같더라도,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들 간의 상호 소통과정은 중요하다. 사업수행 단체들과의 사전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여성재단이 사업의 방향성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업수행단체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획을 한국여성재단에서 다 짜가지고 이 단체에 전달을 한 거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재단이 주는 수동적인 방식 말고, 단체가 구상하고 기획하는 거를 먼저 들어서~ 이제 그것들이 좀 반영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라는 이유로 줌으로 회의를 한 차례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뭘 했는지가..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단체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주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디지털 역량 강화 나오고, 엄마-자녀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 이 정서 부분을 건드려.. 이 세 개의 파트가 거의 다섯 개 기관이 똑같이 작년에 프로그램 안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 (N4)

여성재단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수행단체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재단과 단체 간의 사업목표나 방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적 차이나 단체의 가용 자원, 활동 경험의 차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들과 경험을 하나로 묶어 사업이 진화하도록 하는 데에는 단체 간의 자발적인 소통과 여성재단과의 소통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 단체 간의 소통과 여성재단과의 긴밀한 소통역시 이후 사업 진행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원칙

다음은 기관장 면접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어떠한 원칙들이 적용되었는지 정리해 본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크게 1)참여자 수요 중심, 2)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3) 자발적 참여, 4)자원의 연계, 5)운영상의 유연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참여자 수요 중심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제시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방향에 따라 각 단체에서 사업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단체의 활동 연혁에 따라 모집되는 참여자들의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프로그램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원칙이자 방향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 캠프 기획할 때도 제일 여성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이가 크니까 소통이 안되고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엄마는 혼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다문화, 아빠 없다고 놀림받게 만들었냐 엄마는 왜 한국말도 못해..” 이런 게 있어서. … 아이들하고 소통 잘 안되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소통 프로그램도 넣었고, 아이들에게도 따로 하고. 엄마들도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잖아요. 엄마 역할만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었고, 해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달라지더라도 끼워 넣는 편이에요.” (N1)

“의사소통 경우에는 작년에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자들의 욕구 반영해서 진행했던 거죠.” (N2)

나.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다.

“집단으로 다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원하는 경우만. 저희는 절반정도를 예상하고 다섯 케이스정도는 연결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N1)

“[정서적 역량강화와]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 2가지를 욕심냈

던 것 같아요. 2가지 (목표를) 한 가지 사업을 통해 욕심을 가졌었던 거죠. 힘들 것은 알지만 진행한번 해보도록 하자 했던 거고요.” (N2)

요컨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이후에도 참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프로그램 운영자는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되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모든 단체에서 참여자의 욕구가 가장 높고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프로그램을 단체 여행으로 꼽았다. 그러나 생계와 자녀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은 한부모 이주여성의 특성상 맞춤형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프로그램의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영자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올해 물어봤더니 다같이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물론 의사소통 프로그램 통해서 공유하긴 했지만 단체로 여행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 여행이 무산되서 그런 걸 수 있는데. 한부모 이주여성들끼리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단체로 여행을 가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것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거 같더라고요. 헤어지는 거 말고 여행을 통해서 하고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연대의식을 느끼고 싶은가? 생각하기도 했어요. 2시간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힘을 받고 싶은데 공감이 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감을 나눌 때 힘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2)

“다 따로 보내죠. 날짜 원하는 게, 다 식당이나 기업들이 쉬는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의 7월 말에서 8월 초에 쉬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두 가정 정도를 묶어볼까.. 생각 차가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묻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략)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사진관을 가는데 여기서 조금 먼 곳인데 버스가 안 들어와요. 버스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활동가 쌤들한테 카톡을 올려가지고 차량 지원해달라.. 우리가 이제 30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엄마랑 애들 다 오니까. 우리 자원봉사자가 다 합치니까 그리고 차를 다섯 여섯 대를 이제 섭의를 한 거죠. 저 차도 있고 이제 센터 쌤들 한 명 다 와가지고 다 실어주고.. 또 그 쪽에서 이제 나갈 때는, 제가 차를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N5)

참가자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사자 각자의 요구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참가자의 상황이 상이한 가운데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면, 일정 정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보편성을 갖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자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같이 현재까지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정 정도 모듈화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이전 참여자의 욕구와 수요를 고려해 구성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참여자의 상황과 성격,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프로그램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자의 모집과 지속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고수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후원처와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 참가자와의 언어소통

참가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신경써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언어문제다. 각각의 한국어 소통 수준이 다르고,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의 전달이 원활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통번역 서비스가 항상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좋지만, 현장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주여성이 자원활동을 하거나 이전에 통번역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 발생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른 데랑 할 때 한부모 이주여성한테 추석선물을 하고싶어서 얘기하다보니, 그런 리스트로 쌓인 게 쉽터 다 포함해서 400명 정도 되더라구요. 저희가 저희를 알 수 있는 이주여성과 없는 이주여성들을 저희도 늘 고민이라서 사례를 어떻게 현장에서 발굴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원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예산 범위나 활동비, 사업의 특성화된 방식? 그해 그해 여성재단에서 포커싱하고 싶은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저희는 원래 이주여성 한부모할때만 썼던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꼭 활동을 하면 유료보상이 가능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늘 통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번역이 늘 따라다닐 수 없거든요. 한국사회를 아는 선배들이 활동 할때니까, 그분들한테 소정의 활동비를 주고 현장에서 사례발굴을 할 때 필요한 걸 하는 방식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한부모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있어요. 저희가 이주여성들한테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간을 쪽 돌리면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부모 쪽에 구축해보려구요” (N1)

또한 통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의사소통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극은 참여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는 활동가의 헌신을 통해 메꿔진다.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죠. 왜냐면 다 아시지만 언어라는게 꼭 말만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것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동안 자국민들의 문화적인것도 있고 여러가지 해석되는 정서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통역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통역을 해주지만 이것 50%도 못가는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건 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N2)

라. 자발적 참여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시혜성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N4)

“되도록 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거죠” (N1)

위의 질문들은 모든 단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원칙인 참여의 자발성과도 연결이 된다. 참여자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동원된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은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아이랑 뭔가 자신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별도 신청을 받아 저희 심리 전문가 연계해서 상담 지원하는 과정을 했고요. 아이와 둘 다 받고 싶다 혹은 아이가 원하지 않거나 아이만 원하는 경우에는 각각 진행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N1)

그러나, 한국여성재단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은 단순히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한부모 이주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 네트워크 조직은 자발성과 참여자의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당장 한부모 이주여성의 욕구와 필요가 당장 살 곳이나, 생활비처럼 실질적 요구 (Practical Needs)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를 발굴할 수 있다면, 이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전략적 이해 (Strategic Interest)와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실질적 요구가 전략적 이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결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러한 자조모임 혹은 자발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실제로 단체가 개입을 통해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자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 자원의 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한 단체 모두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해왔다는 점은 이 사업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기관별로 활동과 주요사업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미 운영해 왔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의 참가자를 발굴하고 모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이주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참가자를 찾거나, 센터나 상담을 받은 여성중에서도 참가자를 찾은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 통해서도 홍보하긴 했어요. 한 분에게 말하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있어서. 성남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주민 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명단을 받기도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지만 추천을 받아 하기도 했어요.” (N3)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해서도 다른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족에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단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내 다른 지원 조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족의 아이가 장학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거나, 당장 필요한 생활지원을 다른 비영리 조직이나 기업 후원과 같은 다른 자원을 연계하여 한부모 이주여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통번역 사람들도 있었고 연결 연결해서는 자원은 연결이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도 있고 센터도 있고 …… 어느 정도 자원은 연계가 되어있어요.” (N2)

“저희는 그 전부터 자조모임 혹은 다른 자원(s-oil)도 있고, 여성재단에서는 사실 예산이 한정적

이라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과 상담소나 센터를 갖고 있으니까 자원활동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니,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하면 상담소로 연결해서 하고 심리적으로 하면 심리 전문 상담가를 연결하고, 아동 같은 경우에도 센터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불안정하게 이혼하시는 분들은 아이정서 이런 것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과 단체 연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 연계한 다던지 하고 있고요”. (N1)

단체나 조직차원의 자원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역시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인적자원은 한편으로 가용자원을 동원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의 활용과정이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네트워킹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무료 강사죠. 강사비를 드리지 않고 재능기부 하시도록 했고, 예를 들어 재료비 만 원이면 원가도 안 되는 금액을 결제해 주신 다던지 그렇게 했죠.” (N2)

“자원들이 이제 인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와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 꼭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강사비를 내지만,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하니깐 그분들도 또 좋아라 하시고.. 이게 100프로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저도 이제 진주에서 오래 살았고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실습하신 분이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100만 원을 주시면서 환경을 좀 고치라고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그분들이 그냥 진짜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돈을 먼저 드리고 나도 다른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참석하시고 ...” (N5)

“이재민사랑본부, 로타리 이런 재원. 화장품. LG 화학이 청주에 있어서. 스킨로션 이런 거 챙겨 주고... 어려움 있으면 친구 상담 좀 해주세요 해서 ... 네트워킹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에서 5명 10명 20명되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관계화되는 것이 역량강화. 누군가를 아는 힘. 그 사람을 만나서 요청할 수 있고 내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갖는. ... 그렇게 돈독하고 지속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였으면 좋겠다... 생각하

는 거예요. 필요할 때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저도 행복한 일이고, 아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N4)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가지는 의미를 프로그램 대상자인 이주 여성의 생애주기안에서 나타나는 필요 충족과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대안 중 하나로 다른 자원들을 연계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보면 쪽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한 프로그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때 단계에서는 그 한 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재단 지원만 볼 수밖에 없는데 기관에서는 생애주기로 쪽 연결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여성재단을 사용하기도하고 다른 걸 사용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한부모 이주여성 모임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하고, 출입국에 대한 아주 필요한 부분 거기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N1)

바. 운영의 유연성

생계부양자이자 양육자의 역할을 홀로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이자, 사회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약한 이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업은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이라는 성격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참여자의 상황이 경제활동 여부, 입국시기와 언어능력, 한 부모가 된 시기, 자녀의 연령, 자녀와 본인의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는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매번 참여자의 성격과 상황이 비슷하기 보다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복잡한 행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유연하게 변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지원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잡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한국여성

재단의 간소한 행정체계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후원처인 동서식품의 정책 역시 이러한 유연한 운영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현장에서 사업이라는 게 계속 불리가면서 진화하잖아요. 필요라는 게 처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이들 사업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게 너무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이게 피드백을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려면, 사실은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구조를 좀 계속 고민하는 게,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알짜 없거든요. 거기서 뭐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려면 그냥 이제 이거 사업은 진행되고 다른 재원을 끌어오거나 그냥 다들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거죠.” (N5)

4.1.2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의미

사업을 운영한 단체가 바라보는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의미는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의제 형성과 단체 역량강화의 측면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주여성의 역량강화의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이주여성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사업 명에 들어 있는 “역량강화”의 의미와 연결 지어 질문했는데, 사업주체들이 평가하는 바는 크게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자존감 회복, 자녀와의 소통 역량강화,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답변을 통해 “역량”의 의미가 현장에서 재정의 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1) 역량의 재정의: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자존감 회복

“역량”은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역량강화 사업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나, 능력향상, 혹은 수익창출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

로 부각된 것은 이주여성 당사자의 자존감이다. N2의 경우 자존감 회복을 역량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보고 있고, N4는 역량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으나 자존감 회복인 현재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의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여지가 없다. 많은 경우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에게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물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각종 역량에 대한 고민 역시 프로그램의 일부로 들어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보게 하는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 회복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다른 때에 했던 것은 역량강화라 하면, 예전 프로그램 간호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던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던지 아니면 인형극을 통해 수익창출을 시키던지 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평일 직장을 다니시고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대부분 생산직이기 때문에 다른 한국분들과 소통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자신이 한부모라는 것을 노출시킬 수 있어 심리적인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속에 있는 것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회기 동안 쌓여서 녹아질 것 같고...” (N4)

“1-2년차때도 이번에도 사실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역량강화가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이 됐어요.” (N2)

2) 이주여성 당사자의 삶의 필요 충족: 자녀와의 의사소통 역량강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정교한 언어적 소통이 필요한 정서적 감정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우 생계부양자인 동시에 양육자로서 자녀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로 참여자들의 요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부모 이주여성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역량강화로 볼 수 있다.

“작년 대상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의사소통과 갈등의 어려움을 호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발달을 위해 초점을 맞춰서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해보자 초점을 맞춰고, 아이들 문을 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N2)

“아이들하고 소통 잘 안되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소통 프로그램도 넣었고, 아이들에게도 따로 하고. 엄마들도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잖아요. 엄마 역할만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었고, 해마다 그런것들을 어떤 식으로 달라지더라도 끼워넣는 편이에요. 이번 에도 그렇게 상담이랑 연결했던 것 그런데, 또 집단으로 다 하다보니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원하는 경우만. 저희는 절반정도를 예상하고 다섯 케이스정도는 연결될 것이다 했는데 그 것보단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N1)

3) 이주여성에게 숨실 곳/기댈 곳: 심리적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자존감 회복을 중요한 역량으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심리치료와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성과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숨실 곳이고 기댈 곳이 된다는 점이다. 순탄치 않은 이혼, 혹은 사별 과정과 한부모 가정이라는 낙인으로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경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주여성들에게는 눈치보지 않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자체로 자존감 회복의 과정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한국국적 취득 여부를 떠나 한국에 거주해도 이민여성이고, 이혼까지 하셨기 때문에 결혼이민 여성 사이에서도 또 다른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의기소침 해서 다른 여성하고도 유대가 없는 상황이라서. 같이 한부모인줄 모르고 모였다가 굉장히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이 분들만의 네트워크도 그렇고, 여기서나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N3)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사셨는데 힐링 부분이나 속에 응어리 졌던 부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참 눈물을 많이 봤어요. 꽃꽂이 때도 보면 나를 위해서 꽃을 만들고 다발을 만들어 가져간다는 것에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N3)

“같은 나라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먹고 모이고. 각자 다르지만 그러다가 안에서 만나서 또래 아이들끼리도 벗이 되는 거 보면서 쥔 중요한 건, 같이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관계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N4)

“현재 참여자중 알코올 문제와 우울증이 있으신 계신분이 계세요. 1주일에 한 번 프로그램에 오실 땐 술을 안 마시잖아요. 너무 우울한데 와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억지로라도 가정을 지탱해 나가시고 … 수다를 떨어서 그래도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N2)

4) 한부모 이주여성 캠프: 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네트워크 형성의 장

자존과 회복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는 사실상 몇 차례의 강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의사소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필요한데,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논의된 것이 캠프 혹은 여행 프로그램이다.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낯선 장소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보냄으로써 서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다른 가족들과의 소통속에서 자신들을 더 알아가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네트워크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빈곤은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캠핑에 갔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엄마랑 말 안 한지 몇 개월이 된 상태로, 근데 제주도 간다니까 어쩔수없이 간 거거든요. 저희가 한 가족당 한 방을 주니까 제주도, 저희도 낯서니까 엄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그런 애길 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이와 몇 개월만에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다행이라고.” (N1)

“제주도 캠핑은 오래된 이주여성들의 욕구였어요. 쉼터에 있을 때부터.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요즘은 빈곤의 모습이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나타나잖아요.” (N1)

4.1.3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사회적 의미

4)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의제 형성

우선 사회적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을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의 이중 수혜자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부모 그룹에서도 이주민 그룹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충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쨌든 여성재단에서 이주여성 한부모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수자 중에 소수의 영역을 사실 여성재단이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가는 것, 이 자체가 여성재단의 큰 사업 범위 안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다른 영역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몇 년 이상 여성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N1)

5) 지역 단체 역량강화

여성재단의 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한부모 이주여성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은 단체들의 활동과 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한다. 인적,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많은 단체에서는 여성재단의 사업은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는 또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실무자 인건비 지급과 예산 사용의 유연성에도 관련이 있다. 실무자 인건비를 통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지나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실무자들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사실은 큰 조직은 모르는데. 실무 2-3명밖에안돼요. 후원을 받거나 프로젝트를 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작은 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한 실무자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잖아요. 지역단체들이 가난하고 협소하고 어렵거든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작은 지역의 여성단체들, 특히 이주는 후원 받기가 어려워요.” (N4)

“국고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니까 하나 하기위해서는 이나라로 보고, 서류로 보고해야 하고 붙임서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성재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축소,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2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나라, 사회복지시스템 2가지가 있는데 이나라는 보고를 2번 이상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재단에는 메일로 보낼 걸 출력만 하면 되니까. 이나라는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그 시스템을 (국가보조 통합시스템) 일을 2번 처리해야 해요. 그런 복잡함이 있어요. 입출금할 때에도 좀 까다롭고.” (N3)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 운영과 기획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먼저 사업 계획서를 받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 형태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같이 하는 팀들이 저는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 저런 모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도전도 되고, 새로운 제 나름대로의... "아~ 저 분이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거든요." (N5)

"그래도 여기서는 많은 제약을 두진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었고요. 기획 내에서, 제가 그 회의를 가진 않았지만 다른 단체와 프로그램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유하면서 그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N3)

6) 변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관행 실험

앞서 논의했듯이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이라는 의제 발굴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의제와 정책 논의를 확장 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서는 앞서 논의한 여성재단 사업운영의 유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상당히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과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은 실제로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 지기가 어렵고,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관리가 어렵다. 게다가 방향성과도 어긋난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주여성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키워진 젠더와 인간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하여 단체들이 택하는 운영방식의 몇몇 사례들은 정부사업 틀 안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다. 예컨대 활동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시에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관행은 정부사업의 체계내에서는 실행하기 힘들다.

"도나 정부 사업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딱 정해진 틀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을 올렸었는데 사실 되긴 되는데 이주 여성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고요. 이왕 할 거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금회나 재단 사업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게 낫겠다. 사실은 이제 시나 이런 데서 도에서는 돈을 작게 주면서, 우리가 볼 때 프로젝트 작운데 서류 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감사가 나온다....." (N5)

“그런데 다른 곳과 다른 점은 저희는 중간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개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냈다는 학원비 영수증을 첨부한다던가 교육기자재를 샀다고 해서 그걸 첨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부처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기부금 영수증, 저희가 드리는 아동명단, 아이에 대한 짧은 사례관리? 그걸로 갈음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N1)

4.1.4 향후 프로그램 고려사항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사업이 4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한 자존감 회복,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어 왔다. 이후 새롭게 참가하는 참여자에게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다만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은 상황에 대한 진단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가정하고 일괄적인 처방을 프로그램으로 먼저 내놓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이 외에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 일부 기관장이 제안했듯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넘어서는 “자녀가 크면 필요해지는 큰 옷을 사거나, 학원비, 냉장고가 망가졌을 때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혹은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단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단체가 설정한 중요한 프로그램 중 자격증 취득과 같은 프로그램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를 단순히 참여자의 욕구와 단체의 운영 프로그램 간의 미스매치로 보고 프로그램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부모 이주여성의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참가자의 수요를 반영하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필요가 어느 정도 확인된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첫째 프로그램 운영 후 지속적으로 참가 의향이 있는 참가자의 수요를 반영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단체가 3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충분히 늘어나야 한다.

사업수행과 예산규모의 확대는 모든 운영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지적했다. 동

시에 짧은 사업수행기간에도 불구하고 3-4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주요한 장점으로 꼽았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운영 단체의 역량도 보다 강화되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10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N4)

“이번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1회기~ 조금씩 변화가 보였거든요. 맨 처음과 마지막의 변화가 보여서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면 괜찮겠구나...” (N2)

“1회성으로 끝나서 다른 대상자를 했다고 하면 이벤트처럼 지나가는 것일 것 같은데... 지속적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N3)

또한 연구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기부처가 예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타 기부처의 지원 예산과 결합하여 대규모 또는 연속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기 1년 중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은 6-7개월이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최소 3년 주기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기간내에 사업이 진화하면서 보다 참가자의 수요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참가자의 참여성과 측면에서도, 단순히 몇번의 강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가능할 때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활용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주어진 기간에 주어진 예산으로 진행가능한 사업은 주로 강의이고 그나마도 단체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 기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은 단체 활동 경험 역사가 비교적 풍부한 상황에서 심리상담 연결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였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 내용의 한계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미 사업을 해온 단체들의 경험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 예산이 더 편성되거나 주어진 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4년간 여성재단이 지원했던 역량강화사업의 참여자들과 자녀들이 모두 함께하여 연대감을 다질 수 있는 캠프 등이 제안되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사업 중간 결산으로 전국 한부모 이주여성 캠프를 기획해 볼 수 있다.

“전체 5개 기관이 전체가 다 캠프 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날. 여성재단이 주최해도 좋아요 아예. 여성재단이 지원했던, 참여했던 아이들, 몇 년 동안 그러면 한 100명 넘을 거잖아요, 전체가 다 모이면. 그렇게 대규모로 한번, 그러면 이주여성들도 저희랑 프로그램 할 때는 10명 집단 그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꽤 많고 그런 것들이 꼭 한부모라는 것이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삶에서는 소소한 기쁨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규모 캠프 같은 걸 해봐도 좋겠다. 중간 결산처럼. 내년에는 각 수행기관에서 다 천 만 원씩 나눠 사업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전체 캠프를 한다던지, 결산을 해본다던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N1)

“올해 물어봤더니 다같이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물론 의사소통 프로그램 통해서 공유하긴 했지만 단체로 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2시간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힘을 받고 싶은데 공감이 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감을 나눌 때 힘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2)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한국여성재단은 사업 목적과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수익계약 형식에서 벗어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부모 이주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N1)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이라는 목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단체의 참여는 이러한 목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도 결정된 내용이 답다운으로 전달되어 단체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속에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어젠다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진행된 단체들의 프로그램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 전 기획회의와 다음 사업 기획을 위한 사업 후 평가회의는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한부모 집단에 대한 이해, 특히 폭력피해여성 등 특정 경험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대일 소통, 통역의 활용 등 더 조심스러운 접근

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석 실적이나 융통성 있는 예산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N1).

4.1.5 소결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각기 다른 지역의 단체에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 자녀와의 소통, 네트워킹,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등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원칙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1) 참여자 수요 중심, 2)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3) 참가자와의 언어소통, 4) 자발적 참여, 5) 자원의 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킹, 6) 운영상의 유연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관장 면접을 바탕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의미를 크게 1) 운영자가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의미와 2) 사회적 의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의제 형성의 사회적 의미, 둘째, 지역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여성운동 활성화, 셋째, 변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관행 실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운영자가 평가한 프로그램의 의미는 1)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자존감 회복의 강조를 통한 역량의 재정의, 2) 자녀와의 의사소통 역량강화와 같은 이주여성 당사자의 삶의 필요 충족, 3) 심리적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로 이주여성에게 숨쉴 곳/기댈 곳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와 상당부분 일치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기술한다.

4.2. 한부모 이주여성 당사자 경험

본 장에서는 한국여성재단에서 지원하여 각 파트너단체가 운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당사자 경험을 서술한다. 우선 당사자의 삶의 맥락을 제시할 목적으로 4.2.1에서는 당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주요 고충을 파악한다. 4.2.2와 4.2.3은 당사자에게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논의하고, 당사자의 프로그램 경험을 살펴본다. 4.2.4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앞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서술한다.

4.2.1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21년 다문화가족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는 43.6%,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는 27.2%, 3년 미만인 경우는 19.2%이다. 결혼이 몇 년간 유지된 이후 이혼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부모 이주여성의 상당수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한부모가 된 시기가 달랐는데, 별거 후 이혼이 진행중인 사람도 있고, 5년 미만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부모가 된 지 5년 이상 시간이 흐른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면접참가자들 일부는 몇 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2021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비율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한국 살이 경험이 적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당사자의 주요 고충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고충을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 돌봄, 지지기반 부재와 같은 문제로 분류하여 나열하지만, 이 문제들은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의 문제, 이혼 사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 혹은 실질적인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동료집단이나 가족집단이 부재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주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고립감은 모든 상황의 기저에 강하게 흐르는 정서이며, 이러한 지지기반의 부재, 빈곤, 낯선 땅에서 사는 이주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문화적 낙인과 같은 조건은 고립감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한가지 특징은 참여자들의 고충은 이들의 생애주기 내에서 이혼 혹은 사별을 기점으로 고충이 증폭되는데, 이 시기에 비해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현재진행형이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강도나 중요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경제적 문제

연구참여자의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참여나 임금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꾸리기 위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 이러한 재원으로 삶을 꾸리는데 필요한 소비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을 꾸리기 위한 재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임금으로 충당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의 복지제도 등 다른 자원에 기대게 된다. 많은 경우 한부모 이주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녀 돌봄,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의 고용율은 71.1%로 전체 결혼이민자 고용율은 60.8%보다 높은 편이다. 직종별로는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는 단순노무가 40.1%, 서비스가 28.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이 12.4%, 기능원이 8.9%, 판매종사자가 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4% 기타 2.5%를 차지한다. 대부분 단순노무, 서비스업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서 상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난 집단은 아니었다. 또한 아래 면접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영어강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기반으로 삶을 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에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5,6개씩 일을 했고요. 시간을 매니징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수업을 하러 다니겠어요?” (1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의 93.3%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자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9.5%, 수령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지속적으로 받는 비율은 21.4%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당사자들도 2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수령경험

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험을 공유한다.

“(양육비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왜냐면 나왔을 때 법원 쪽에서 아무도 못 바라니까... 그때는 나도 좀 한국말 좀 그러니까 양육비도 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저 손잡고 가서 그냥 하는 거야. 끝내 달라 하는 거야” (9)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역시 체류자격, 정보과 소통능력,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하여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면접 당사자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명,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7명이었다.

“일단은 수급자가 되야 혜택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돌봄 교실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갖고 다른 거는 돈 들어오는 거 진짜 생활비처럼 들어오는 거 없어요. 왜냐면 수급자는 통장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13)

한부모가족은 한 명이 소득과 돌봄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양부모에 비해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정이윤, 2016).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경제활동으로 주거비나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집주인이 이제 계약 만료되면 월세로 바꿀 거래요. 저는 월세로는 부담이 커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7)

“제일 큰 걱정은... 애들 이제 당장 고등학교 가잖아요. 3명이잖아요. 그게 걱정이죠. 학원 다니면... 학원비. 그게 걱정이죠.” (11)

빈곤의 경험은 자원의 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빈곤과 결핍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기에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재화의 부족에 머무르지 않고 한부모 이주 여성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인 이유이다.

“우리 아이가 엄마 돈 있어? 그런 적 있어요 미납될 때가 있고 그래서... 1년 연말되면 사업중단 되면 돈이 없고 한국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해야 돼요. 엄마 돈 있어? 막 그래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5)

2) 자녀돌봄 문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혹은 별거한 결혼이민자의 93.3%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계부양자이면서 돌봄제공자인 한부모의 특성상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들에 대한 돌봄공백으로 이어진다. 자녀의 양육이 주양육자 뿐 아니라 조부모와 돌봄기관이 결합되어야 돌봄공백을 매울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빗대어 볼 때, 한부모가정은 돌봄공백에 더 취약할 수 있다. 5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어려움 26.8%, 바쁠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음 20.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이혼 별거 가정의 경우 바쁠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음이 50.7%로 가장 높았다(최윤정 외 2022).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서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아기 너무 불쌍해, 나도 불쌍했지만, 아기도 너무 불쌍해. 한국에서는 거의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아니면 할머니, 외할머니 있잖아요.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혼하면, 거의 뭐 친정 그런 거 진짜 없잖아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다녀오고, 아침에 새벽 나오면 아이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6)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혼자 키워야 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많이 보통 일 아닌 거 같아요...(생략)...엄마 아빠 이혼해서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엄마도 혼자니까 힘들다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이기 때문에 소통 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였고.” (12)

“애들한테 미안한 거죠, 제일.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니까. 애들 같이 애들 놀 때는 제가 바쁜 시간이라서, 지금은 평일 아니면 애들은 그냥 이렇게 별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어떤 때는 제가 일할 때는 애들 아프면 [돌봐주지 못하고]” (13)

본 연구에 참여자들도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혼이나 사별이후에도 시부모와 왕래가 있는 경우 시부모에게 부탁을 하거나, 친정에서 가족이 오거나, 동네에 지인 있는 경우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공공보육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이주여성은 돌봄공백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애가 3살 때, 시어머니 좀 봐달라고 하고... 그때는 30대니까 일 할 수 있었거든요. 봐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데리러 왔는데 애가 그날부터 밥을 안먹는거예요.” (4)

“아무튼 친정 쪽에서 도움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원래 없는데 이번에 엄마가 왔어요. 친엄마가. 제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엄마가 온 거예요. 지금 엄마 온지 한 달도 안 됐어요.” (9)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돌봄의 문제는 학습과 자녀의 유대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202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에서 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 56.8%,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40.5%, 자녀의 학습 지도, 학업관리의 어려움 41.9%,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족, 갈등, 비행 2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사춘기로 접어든 자녀와의 소통과 성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가정 형태 때문에 아이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내가 자녀의 숙제를 봐주거나 학업을 도와주지 못

해서 아이가 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5,8,9)

“이제는 아이가 크니까 한부모 가정이라고 아기가 저기 학교 폭력 당할까 봐, 이제 아기 사춘기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저기 학원 숙제 뭐 그런 거,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 잘 안 놀아주면 어떡해요. 한국 엄마들은 너무 차별하잖아요. 엄마들이 와서 "다문화 아기 같이 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당하면 어떡해요.” (6)

3) 지지기반의 부재_가족과 친구, 동료집단

연구참여자 중 소수가 한국에 친정 가족 혹은 친한 친구가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타국에 함께 있는 가족의 유대와 지원이 더욱 강력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가족의 개입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개입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마 저는 한 몇 년 동안 (가족이랑 연을) 끊었어요. 이게, 동생은 너무 똑똑해요. 잘 알고 있어요. 이쁘고 잘해요, 알아요. 근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니까, 몇 년간 이모 삼촌 다 그냥 끊고 안 만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만나면 왜 니가 이것 밖에 못사냐고, 아이 주고 오지 왜 굳이 이렇게 고생하고, 저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그냥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요 한마디 듣고 아니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5)

“친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친구가 2명 정도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낙태가 보편적이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인식을 지닌 애들이다 보니 낳으면 입양 보내지, 그러니까 한 두 번은 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지 그러는데 전화하면 너만 생각해라 크면 찾아온다 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연락을 끊었더니 요즘들어 생각이 한 두 번 나더라구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져서...” (4)

참여자 중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어 사회단체나 이웃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질적인 도움을 구한다기 보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고립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에 가깝다.

“부모님이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많이 걱정하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나, 제가 그때 여성센터에 전화 한번 한적 있었어요. 그냥 저녁에 이른 저녁에,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13)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기보다는 위축되고 고립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상황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지지를 얻기보다는 낙인이 되어 온신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들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다문화와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 하고 말하면 저기 소문 돌고 이런 얘기하고 또 하다가 뭐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튀어서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다른 모임은 친구들 계모임 같은 거 저는 참가 안 해요. 그런 소문 도는 거..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로 싸우고 그런 걸 많이 봐서..(생략)..자랑거리도 없고 얘기를 하면 ‘안됐다’ 듣는 거 밖에 없어요.” (13)

“근데 (사람들한테) 완전 속마음은 얘기 잘 안 하죠. 적당히, 살짝만. 왜냐면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나가면 또 소문하고 그런 거 싫고 그래요.” (5)

“저 (이혼얘기) 안 해요. 교회 가서도 특히 얘기 안 하고... 애들한테도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단속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게 모르게 편부모라는 게...” (11)

한부모의 바쁜 일상과 경제활동 또한 동료집단 형성에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새로운 친목활동이 가능하지 않고(9), 원래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도 바빠서 연락하기 쉽지 않다(6). 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친목을 다질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8).

“사람은 다 바쁘니까... 그리고 베트남 한부모 몇 명 없어요. 베트남 한부모 없는 건 아니고 있어도 사람들은 다 일 나가기 때문에 거의 힘들지 않나 싶어요.” (9)

“다문화한부모가족모임에서 한 명 있었어요. 이야기 아직 말 안 했지만 아마 이 사람이 저랑 나이 비슷해. 필리핀 여자였고 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았어. 이 사람이 너무 바빠요 일을 해야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고싶어. 아마 친구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8)

“그냥 옛날에 저기 처음에 한국 올 때, 한국어 배울 때 만난 친구랑..그때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그럼 또 가끔씩 전화하고... 만나는 거는 너무 별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아기 학원비도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6)

4)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복합적 감정: 제도에 대한 감사와 소외감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와 그 사회 내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감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한부모, 이주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다행히 아기가 다니는 학교들 너무 좋아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사회복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한민국 감사하는 건 그런거예요.”(9)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진짜 내 상황이면 [출신국]이면 누가 뭐 사람 하나 더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안하는데... 좋은 나라구나.”(4)

“아직은 복지 혜택이 좋아 갖고 복지 제도가 좋잖아요. 기초연금 노인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 제도가 도 좋고... 그래서 노년에도 그렇게 막 너무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진짜 돈 없으면 노인들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젊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나라에다 내면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11)

“불편한 거 없고 너무 감사하지. 이만큼 해줘도 감사해요, 왜냐면 저한테 이런 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오면 애들한테도 생활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이만큼도 너무 크게 해주는 거예요. 애기 키울 수 있게... 다른 나라는 있나 다른데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베트남은 안돼. [출신국]은 솔직히 이렇게 살기 힘들거예요. 저 못살아요. 애기 못 키워. 저는 너무 솔직히 얘기하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미안해요. 근데 나는 다행히 한국에 와서 한부모 되는 거야, 아니면 나랑 애기 죽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9)

그러나 한부모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 사회는 나를 비참하게 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이기도 했다.

“허공에 대고 나는 왜 한국을 왔을까, 왜 여기를 왔을까, 이 길을 왔을까.. 너무 후회돼요. 만약에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나는 여기 안 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6)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한국 와서 잘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할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좀 살 만한 사람인데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해... 이혼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 (5)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이방인으로서의 감각은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단순히 고립감일 때도 있고, 구별 짓기, 차별과 무시의 경험으로 인한 소외감이기도 했다. 이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근면성실한 태도로 일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이방인이라는 감각

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직접적인 차별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주민으로서, 한부모로서 느끼는 소외감 혹은 고립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은 [출신국]보다는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 여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중략)...소외받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같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도, 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융합되지 않는?” (7)

“이게 내가 한국에서 살아 보니까 내가 0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무시하는 경향, 시선도 많이 받았고 솔직하게 무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인정을 해주지만, 잠재의식 속에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특히 친구. 가까운 친구도 안 된다. [한부모라는] 얘기하지 말고 아는 순간 개가 너를 한 단계 낮게 본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애들도 그런 거 알아서 잘 얘기 안 해요. ” (11)

매일의 생활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이는 스스로 공공장소에서의 소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다.

“말하는 톤까지도 별로예요... (생략)...말할 때는 태도가, 태도가 별로 좋지 않고. 계속 제 말 이해 못하고 계속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다고 저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태도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가고 싶어지잖아요.” (6)

“솔직히 말하면 저 학부모 안만나요. 나는 조금 특히나 좀 안 좋아 난 안될 거 같아서... 소통도 안 되고 한부모 만나도 저한테 안 맞아서 그냥 얘기만... 선생님이랑.” (9)

“다문화” 여성이라는 구별짓기, “다문화” 혹은 “외국인” 자녀라는 구별짓기와 이러한 구별짓기가 차별이 되는 순간의 경험 역시 소외감을 부추긴다.

“나는 다문화여자?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왜 다문화여자지? 나는 그냥 일반여자인데...? 아 나는 다문화 애기엄마구나... 거기서도 힘들고.” (5)

“자녀 키우는 거에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놀이터 이제 하원을 해서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잖아요. 그러면 한국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중국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 섞이지가 않아요, 애들도. 재롱 잔치를 하거나 할 때나 보면은 …… 센터에는 다 한국 애들만 세워놓고 뒤에는 다 중국 애들이고…… 제가 지금 알고 지내는 엄마들은 다 대부분 다 [출신국] 사람들이예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오래 못 가요. 알고 지낸다 하더라도 그냥 잠시 잠깐 뭔가 용건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계속 오래 지속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 밖에 없어요”.(7)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사람이 아니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아이랑 외국아이랑 싸웠다고 하면, 선생님은 외국아이보다는 한국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요.” (12)

5) 건강의 문제: 심리, 신체상의 문제

상술한 경제적 어려움, 장시간의 노동, 홀로 담당하는 자녀 돌봄 등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주민이자 한부모로서 겪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이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 네트워크의 부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자체가 상황을 개선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아픈 몸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자원에 기대 삶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무기력하게 표류하거나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공포로 지내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잘 살아내는 거... 당장에는 급한 거, 직장문제고. 근데 직장문제를 애길 하더라도 허리 때문에 안되니까 벌써 좌절이 오는 거고. 저 갱년기왔거든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울그락불그락.. 그게 받아들여지가 아직은 1년정도 됐으니까 몸의 어떤 변화들? 날로 찌어가는 살?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생략)... 일단 뭘 해도 직장이 있으면 요새 뭐하니? 그러면 백수야 그것보다 뭐라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다른 사람한테 재는 애 혼자 키우면서 놓고 있으니... 그런 체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상 채워지지 않으니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죠.” (4)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2가지뿐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까봐, 제가 죽으면 제가 죽는 것보다 아이는 어쩔까, 죽을까봐 엄청 우울했는데, 밤이면 밤마다 그냥 자고 있는 애를 보고 혼자 상상을 해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없다, 애가 혼자 있다 이러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죽더라도 눈을 못 감을 거 같은.. 밤마다 울다가 그냥 같이 죽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7)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특별히 저한테 인생이 재미없어요. 그냥 지금 애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헤어지고 다음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몇 번 자살(시도)도 했거든. 자살하는데 죽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상태 안 좋아도. 그냥 사람들은 아프면 누워서 살든지 죽으면 돼. 그런 상태도 아니고 아파도 일어나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니까...” (9)

“항상 살다 보면 이게 아무리 오래 살고 늘 웃어도,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리치료 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5)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 돌봄, 지지기반 부재와 같은 문제를 경험했고, 이러한 어려움 중 다수는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로 인해 이들의 자존감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서 기관장 면접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에서 온전하고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위해 자존감의 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자 목표이다.

연구참여자의 고충은 당사자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참가자의 대부분은 자신

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찰의 시간을 보낸 편이며, 전체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도 혹은 이러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어려운 문제들은 지속되지만, 모든 한부모 이주여성이 이 어려움 속에 빠져 무기력하게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이 보고서의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논의할 때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성찰의 계기가 된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평가하면서 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은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는지 논의한다.

4.2.2 센터의 역할과 의미, 한계

이 장은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주체(한국여성재단 협력단체, 이하 센터)가 결혼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들은 본인과 센터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또 그 과정에서 동시에 측면을 센터의 역할 상의 한계로 이해하는지 탐색한다.

1) 공감하고 연대하는 지지체계, 소속감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센터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연대하는 장이었다(4, 5, 7, 9, 11, 12). 당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지체계에 비해 한부모와 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이해해주는 집단을 발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음을 토로했다(4, 7, 9).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았던 한부모 모임, 다문화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어려움이 두드러져 보이고, 나아가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한부모 모임에 3-4명 애 데리고 가면, 다문화잖아요. 의사소통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뭔가, 문화 차이, 장벽 이런 것들? 이방인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문화센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거기서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누구

아빠는, 나도 저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 자주 보여주는 것도 애한테는 상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있잖아요.” (4)

“외국인센터도 가면은 저기도 다문화 가정 엄마들도 많이 오고, 하여튼 무슨 활동이 있거나 이러면 아빠들도 많이 보이고... 그건 그냥 저랑 다른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저도 모르게 그냥 벽을 치는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도 혹시나 제가 상처 될 부분이 있을까 봐 좀 벽을 치는 것 같아요. 벽을 치고... 얘기하다 보면 아빠 얘기 나오면 그냥 걸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정말 그냥 쿨하게 넘기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전 괜찮지만 또 애가 또 받아들이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런 상처를 안 받는 게 낫잖아요.” (7)

“너무 좋은 게 저는 어디 가도 어울리지를 좀 이렇게 융합이 안 된다는 느낌이 한부모 엄마들한테도 있어요. 이제 한국 엄마들도 어울리다 보면 저가 또 소외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도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툭툭 뭉쳐요. 근데 여기는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냥 굳이 만나서 뭐를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 자체가 너무 편해요. 그냥 너무 똑같아요 저랑...” (7)

반면, 당사자들이 센터에서 만났던 다른 한부모이주여성과 센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공유하기 꺼려졌던 사생활이나 어려움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동지”(fellow, 12) 집단이다 (4, 5, 7, 11, 12, 13). 당사자들은 타국에서 홀로 고립된 듯한 나의 상황에 “손길”이 되고(11),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지트”(4)가 되었으며, 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같은 출신국의 사람들이 아니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내 고향 친구”를 만나는 것, “외국 사람들에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것과(13) 같은 반가운 경험이 되었다. 특히, ID5 씨는 자녀가 다른 또래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다른 다문화 행사에 참여할 때 눈총을 받아 아이를 항상 끌어안고 조용히 하도록 통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센터 행사를 참여할 때 그녀는 “밥을 배불리 먹고, 눈치를 안 보는”,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공간임을 설명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센터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파악하였다. 프로그램의 유익함 정도는 오히려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7, 8, 9, 11),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더라도, 반복하여 참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9).

“저랑 너무 똑같아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그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이런 모임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다고 진짜 진심” (7)

“외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외딴섬에 흩 떨어진 그런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시댁하고, 신랑을 보고 왔는데 그 신랑이 나를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내 자식은 완전히 동떨어진 거잖아. 혼자 고립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손길을 보여줘서 여하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같은 나라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 (11)

눈여겨볼 점은 센터라는 지지체계가 당사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년 전 이주하여 이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9)씨는 특정 프로그램, 특히 초급 한국어 교실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함을 당장 주지 않는 것도 새로운 한부모이주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이런 지지체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새로운 이주가정, 한부모 가정이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어떤 거 더 좋을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 나와도 다 도움이 돼요. 그냥 회원들 생각해주면 다 좋은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아니에요. 뭐든 다 돼요....(중략)...[새로운 한부모이주 가정들은] 잘 모르고, 그분들도 사람들 만나고 참석하고, ‘이런 프로그램 있다’, [센터]에 있는 거 알려주고 참석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올해[만] 말고 계속하면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한부모 쪽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되고, 그게 도와주는거예요. (9)

센터는 참여하는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소속감을 부여했다. ‘아지트’(4), ‘우리팀’(9), ‘친정(5, 6, 11)’, ‘커뮤니티’(12) 라고 묘사되는 이 소속감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것, 나를 이해해주는 집단이 있다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당사자들이 느낀 소속감은 참가자 간 친밀감과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의 것은 아니었다. 참가자들끼리는 아주 친밀하지 않더라도 나를 이해

해주는 집단과 구성원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아지트.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랑 친하진 않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 설 수 있는 곳“ (4)

센터에 대한 당사자의 소속감은 때로 센터의 책임자나 강사로부터 적극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4, 11). 이러한 소속감은 가까운 곳에 다른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센터와의 인연을 지속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12).

“저 어디 안 다녀요 여기만 다녀요. 우리팀 있어요. 우리는 다문화 가정 (이면서) 한부모 팀이 있어요. 우리 팀이 뭐든 국장님 몰라도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팀이 있어... (중략) ...나 혼자 아니라서. 같이 하니까 나 혼자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좋아요.” (9)

“제일 인상 깊은 게, 그 마지막에 그때 여기 소장님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끝나잖아요.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항상 외국인들 여기, 이게 다 타국이잖아요. 와 가지고 친정이라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자꾸 연락하고 그러라고.” (11)

“[강사님이] 강의해주시면서 너무 힘들 때는 나한테 문자라도 하고 그러면 커피 모바일 싸드릴 테니 힐링하시라고 그러는데, [강사님이 사는 지역] 놀러오면 관광해드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졌어요.” (4)

2) 주류 전달체계와 다른) 한부모이주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센터를 구성하는 책임자와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들은 한부모와 이주여성이라는 특성에 대해 이해와 배려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 “머리를 쓰고”(4), “신경도 써주고”(9), “도움이 될까 생각한 티가” 나고, “천천히, 계속 설명해주”기 때문에 의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로 센터와 그 구성원을 인식하고 있다.

이분들이 이걸 기획하느라 머리를 쓰셨구나 느낌이 확 와요. 계획표보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한 게 티가 나거든요. (4)

“이런 거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 만나도 차 한잔 먹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저한테 보고는, 오늘 상태 어때? 내가 아픈 거 보고 이 과정 어디 힘들고 이런 거 다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9)

“They are very approaching, and they are kind and also that like they have a good heart.”(12)

특히, 현재 특정 센터 한곳에 오래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9)씨는 센터에서 받는 지지와 후원을 확장하여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감사로 이해하고 있으며, 덕분에 일차적으로는 한부모이며 이주여성인 내 삶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대학을 지원하고 장학금도 신청하는 등의 미래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 부담 없게 만들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다니라고, 애기들도 같이 하라고 하고. 그리고 후원은 국장님이랑 언니들이 옆에 붙어서 (출신국이 같은) 언니도 붙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여행도 짜주고 그런거요. 재밌게 해주는거예요... 뭔가 저는 한국에서 항상 마음이 감사해요. 속으로 항상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한부모여도 아이 잘 키울 수 있는거야. 만약 우리나라 오면 좀 힘들거야. 못할 거예요 진짜.” (9)

센터의 이해와 배려는 당사자들이 경험한 다른 주류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차이점으로 인지되었다. 당사자들이 가장 자주 논의한 전달체계인 동주민센터의 일선 관료와의 상호작용에서 “괜히 주눅 들고, ”한 단계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4), 공무원들이 나의 이혼을 의심하거나,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6)하여 상처를 받았던 경험과 특히 대비되었다.

“다 공무원들 있는 곳 가면 괜히 주눅들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위치에서만 보니까, 한 단계 깔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강사들도 접해보면 **에서 교육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부모교육하고 그럴 때. 물론 강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속도로 말해도 알아들으세요? 하는데 그 눈빛이 우리 입장이 아니라 자기 강의를 멋지게 해야하는데... (4)

“센터는 우리한테 진짜 도움 많이 해주는 거죠, 우리 위해서 생각하고, 동사무소는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은 왜 혜택 받냐고 하고, 그리고 남편 쪽으로 재산 월급 좀 많았는데, “진짜 이혼하는 거야? 아니면 가짜 이혼하고 여기에 혜택 받으러 온거냐” 그렇게 정말 저기 말 툠까지도 별로예요. 그리고 계속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 하고... 계속 이렇게 앞에서 “이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못하는데요?” ...그런 태도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안 가고 싶어지잖아요. “ (6)

3)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곳

센터는 당사자의 개인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씨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여권 만료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의 도움을 받아 여권을 연장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출신국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서류를 만들었으나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9)씨 또한 센터를 통해 대학교 장학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프로그램 등 공적 서비스와의 연계를 경험하였다.

“한부모 쪽에서 지원받는 거, 다문화 가정은 어디 사회복지 쪽도 있으면 항상 신청해줘. 이런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풀고 공부도 하고, 신청도 해주고 참 생각하는 거 저한테 맞는 거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9)

4.2.3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역할과 의미, 한계

본 장에서는 한국여성재단에서 2019년부터 후원하고, 5개의 파트너 단체가 각 지역에서 운영한 역량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주여성한부모에게 프로그램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우선,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가한 연구참여자가 사업의 기획 목적인 ‘역량강화’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탐색한다.

1) 당사자들이 파악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목적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지만, 프로그램의 기획 목적과 정확한 명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면접 과정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였거나(5, 7, 8, 12, 13),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6). (4 질문없음, 9). 따라서 연구진은 질문을 재구성하여, 당사자에게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낀다(9, 12, 13). 여성 한부모의 삶을 지지하고(9), “우리” 들 간 친밀감과 유대의 형성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이해했다(12, 13).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하거나(8, 9, 12), 향후 내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했다(9, 11).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몇 가지 측면의 한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기획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일반프로그램과 여행프로그램이 당사자에게 각각 어떤 의미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서술한다.

2) 일반프로그램의 유익성과 그 한계

여기서는 역량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주여성한부모에게 여행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였다. 이주여성한부모에게 각 파트너단체가 운영한 역량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개별 프로그램의 유익함이 자주 논의되었다. 초창기부터 역량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4)씨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을 10으로 두었

을 때, 프로그램의 유익함이 7을 차지한다고 평가했고, 여기서 7은 자신에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첨언했다. 특히, 미술치료와 같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이었지만 결국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한다. 다른 당사자들도 경험한 역량프로그램에 대해 내가 돈을 내고 어디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6, 8, 9),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자(4, 8), 엄마로서가 아닌 스스로를 위한 힐링의 시간(7, 9), 희망이 생기고 의지가 되는 프로그램(9)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나와 아이 간 관계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엄마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5, 8, 12).

“거기에서 공부 중에 자녀와 소통하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방법을 실천하니까 딸이 갑자기 엄마 왜 이렇게 착해졌냐고(웃음). 예전에 아이랑 소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친구 같아요”(5)

“희망이 있고 의지하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나도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배우고 싶어 근데 이런 지원 없으면 아무도 못하고 모르는 거지. 도움주는 거 커요...우리한테 이런거 프로그램 중요해.”(9)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제 아이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넓히고,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아이들의 성격과 태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해줬어요”(12)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의 유익함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센터라는 공간과 참가자의 구성이라는 배움의 환경이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 5씨는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삶의 낙”이라고 표현하며, 센터라는 공간에서의 배움이 특별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같은 한부모니까 실수해도 훔 안보고... 뭐 세수 안해도 누가 뭐라고 안하고. 거기 다 여자고 나이도 있고 그럼 앉아서 수업 듣고 궁금하면 손들고 물어보고”(5)

프로그램 자체의 유익함 외에도, (4)씨는 나머지 3의 만족을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면 보상하는 행사, 즉 ‘평가회’에서 찾았다. 아이와 현실적 문제로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여유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서 좋은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평가회라는 체계, 즉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필요하다. 평가회에서 받았던 보상 또한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40만원 지역상품권만큼 좋은 것도 있어서 놀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프로그램 참가는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찾는 동인이 되기도 했다. 스트레스 풀고, 그 시간에 잡생각 없이 집중할 기회이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9).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집에서 “티브이나 보고 앉아있었을” 본인에게 어떻게든 일어서게끔 도와주는 동력,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동력이었다(11).

“[프로그램 참여를 안했으면] 내가 집에서 티비나 보고 앉아있고 아무생각 없었을텐데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고 강의를 듣고 그러고 얼마 안있다가 일 다니기 시작했어요...밖에 나가게 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11)

반면, 한부모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자기발전이나 변화를 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4, 5, 6). “다문화쪽”사람들(4, 5)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간단하고 얇은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너무 수준을 낮게” 보고 접근하며(4), 대부분 단기적 성격이 강해(5) “교육의 수준 측면에서”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5)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토로하였다. 참가자의 한국어 수준이나 한국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유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매우 다른데, 한국에 이미 적응했다고 느끼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약하다”, “안 맞다”(4, 5, 6)고 느껴졌다. 특히, 현재 일이 바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6)씨는,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학습이나 국적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심 갖고 있지 않음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장이라는 한정적 공간에서, 강사가 이끌어가는 것을 기본 골조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간식으로 나오는 샌드위치조차 반복되는 “판에 박힌” 구성(4)이라는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비교적 장기적 성격이 있었던 프로그램에서도 가시적인 변화와 연결되지 않는 한계들이 경험되었다. 예를 들어, 상담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했던 (4)씨는 일정 기간의 상담 후 완료되는 프로그램의 반복적 참여에 대한 피로감을 설명했다. (4)씨는 10회기의 상담 후에도 파악하게 된 문제에 대해 대책이 제시되지 않거나, 가시적인 변화 없다면, 그 활동의 의미가 축소됨을 지적했다. 면접에서 (4)씨는 앞으로 2회기의 다른 상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가라면 가겠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안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10회기 마치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 털어 두긴 했구나 근데 근본적인 뭐가 없구나. 그거로써 역할도 있었겠지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떠들다 왔네,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네” (4)

3) 일반프로그램을 통한 유대관계의 형성과 그 한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간 유대관계 형성에 일조한다. 이주여성한부모 당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의 참가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타국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9), 동시에 “남의 나라 땅”에서 고립되는 경험을 하고(4),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11, 12) 토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는 참가자 간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기회이다.

“우리는 애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빠서 그냥 만약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거야. 이런 프로그램 없으면 못 만나. 밥도 같이 못 먹어. 다행히 계속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줘서 우리 한부모 쪽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없으면 진짜 만나지도 못하고” (9)

“내가 뭘 모르는 거... 여기서 알려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같은 국적 아니래도 서로 친구를 사겨서 나한테 사는 데 도움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11)

한가지 특징적인 면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프로그램 참가자 간 사이가 매우 돈독하다거나, 자주 소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4, 6, 7, 8, 11).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짧은 시간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참가자 간 서로 만나는 기회만을 제공할 뿐, 친밀해지기는 어려운 빈도라는 것이다. 참가자 간 소통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센터 측에서 종종 권유되기도(4) 하지만,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발화점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자꾸 부대껴야지 갈등도 생기고 해결하고 친해지고, 근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2시간이면 2시간, 토요일이다보니 애는 늦게 일어나지. 이번에는 거의 부모들만 참여를 했었어요. 토요일 아침에는 뭐 하는 게 없이 바쁘지... 잘 일어나지도 않아지고... 그리고 시간 딱 맞춰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1시간이라도 미리 잡아서 우리끼리 잡담하고 놀면서.. 근데 또 거기서는 교육 받아야하고 잡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4)

“[센터] 선생님들도 “연락하세요, 만나세요” 하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대화 통하는 2-3명 정도 얘기하다가 “연락할게요” 하다가 직장다니고, 시간이 없다는 거 보다 마음이 안가요. 내 상황이 힘든데, 카페에서 떠든다고 1-2시간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영양가 있는 얘기도 없고 떠들다 오고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해요.” (4)

“[프로그램] 시간은 잠깐 잠깐 하고 그냥 거기에 맞추고 끝나면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만약에 한 반년, 1년 막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이 들것 같아요” (11)

“센터 친구들은 그냥 저기 만나서 아기 어떻게 키우고 있고, 아기 어떻게 되는지, 아기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거.. 아기 위한 얘기 밖에 없을 것 같고” (6)

“가도 그냥 그 시간에 강의 듣고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가고, 아무래도 생계가 있어서, 저는 일을 안하지만 대부분 일하시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다 바쁘니까요.” (7)

“같이 머물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거나 이런 거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은 아 다음 교육에 만나요, 다음에 봐요,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더 가까워지겠어요.” (8)

4)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여행프로그램의 의미

각 센터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9년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당일치기 여행 프로그램 지원을 기획하기도 하였다(8, 9). 또한, 여성재단의 지원 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4) 호캉스에 참가하는 등 여행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책임과 의무의 공간인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감을 주었다(4, 5, 12).

“제가 한국 와서 바다, 물에 들어간 게 인권센터에서 처음이에요. 그때 처음 한국 와서 한 번도 그렇게 여유 없었어요. 그날은 제가 아이 된 거 같았어요. 그때 한부모 엄마들이 눈물 흘리면서 갔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바다 들어가서, 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갈 수 있었는데” (5)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 여행은 자녀의 또래집단에서 점점 보편적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고, 당사자들은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녀에게 사주기 어려운 것을 경험 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있다(5, 6, 7, 12).

“우리 아이가 비행기 못 타봤거든요. 그것도 제주도 2박 3일 너무 좋았어요...(중략)...너무 좋아하고 혼자 침대에, 안자고 아깝다고 안자요. 한국 와서 굴도 따봤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또 언젠가냐고 물어보고.”(5)

“아기 혼자 데리고 제주도 갔다 오는 거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기는 한국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아이 친구들은 제주도 많이 다녀온 친구들이 꽤 많았더라고요...(중략)...갔다 오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너무 당당하게 아기가 ‘나도 갔다 왔어, 나도 다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신감 생기면 엄마는 더 든든하잖아요.” (6)

센터의 교육장에서 정형화된 설계로 짧은 시간 참여하는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여행 프로그램은 장시간 “부대끼” 수 있어(4), 참여자 간에도, 당사자들의 자녀와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4)씨는 2박 3일의 일정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엄마의 자녀들 간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역할을 했다는 효능감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4.2.4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당사자가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 생기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술한다.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3가지 측면, 당사자들 간 교류, 당사자와 자녀의 자기개발 기회, 휴식과 치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당사자 간 교류의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참가자들 간 감정적 교류와 이주국가 간 문화 교류가 논의되었다.

1) 당사자들 간 교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짧은 수업 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당사자 간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써의 프로그램 구성을 원하는 참가자들이 있다(4, 5, 6, 8, 12, 13). 이들은 자국의 음식 등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4, 7)와 한부모가족캠프처럼 참여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희망했다(6, 8, 12, 13). 특히, 여행프로그램은 장시간 같이 머물며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8, 12), 못 나눴던 “회포를 풀” 기회(13)로 이해되었다. 특히, 8씨는 센터의 다른 참가자나 직장, 아이의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 등의 유대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프로그램이 깊이 있는 교류가 가

능하도록 설계된다면 이 부분을 도울 것으로 보았다.

“같이 [여행을] 가면 우리 엄마들끼리 많은 얘기들 나눌 수 있고, 우리 시간이 더 생기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물론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더 쉬이는 시간이 생기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센터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머물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얘길 나누고 다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으러가자고 하거나 이런 거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은 아 다음 교육에 만나요, 다음에 봐요,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더 가까워지겠어요?” (8)

2) 당사자와 자녀의 자기개발 기회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와 자녀의 자기개발 기회를 논의하였다. 제빵,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등 구체적인 자격증을 포함한 취·창업 교육(4, 5, 6, 7, 11)이 제시되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 문화, 요리, 화장, 생활, 법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언급하였으나(4, 5, 8, 9, 11, 12, 13), 이는 한국어 수준과 적응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4, 8, 12).

“역사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아이랑 소통을 하고, 역사를 모르면 대화가 안돼요. 우리 아이는 많이 아는데 저는 모르니까 대화가 안돼요. 에이, 됐어, 엄마는 모르는데 뭐 그러면 속상했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아 이렇게 배우고... 그래도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았어요.” (5)

“저는 이제 좀 오래 되어가지고 이런 복지나 이런 걸 그나마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외국 사람들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한글을 잘 모르거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도움 주실 수 있고 또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으면 도움 받을 수 있고” (13)

당사자들은 또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였다. 엄마가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

시킬 수 있을 만큼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며 자녀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4, 7, 13)을 제안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성교육, 심리치료, 성격검사, 의사소통 프로그램(5, 6, 9, 12),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코딩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특히, 6씨와 7씨는 자신이 수행하는 양육자의 역할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자신의 역할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애들은 제가 잘 못 놀아주니까 놀 수 있는? 저는 체력이 바닥인데 우리 애는 에너지가 진짜 붕 떠 있어요. 약 먹으면 조금 가라앉는데, 맨날 저한테 하는 불만이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준다. 제가 그런걸 잘 못해요...(생략)... 몇 번 해주다가 나 이제 너랑 노는 거 못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7)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잖아요. 사춘기 되면 남자아이인데, 엄마가 힘든데, 아이한테 어떻게 되는지 얘기나 교육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좋고, 그리고 게임. 게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6)

3) 휴식과 치유

연구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자녀의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8, 11), 힘들어도 한국이라는 타지에 있는 목적(5,6,8), 잘 살고 있다는 의미(4,10)로 묘사했지만, 동시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어려움, 양육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무게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치유할 시간,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희망했다. 특히, 책임과 의무인 공간인 집에서 벗어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가거나, 오리배를 타거나, 산, 공원, 바다 등 여행을 통해 자녀와 함께 또는 따로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휴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4, 5, 7, 8, 13).

“엄마가 행복해지면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에게 좋은 감정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잠시라도 이야기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8)

나의 심리, 정서를 돌볼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발견되었다(4, 11). 당사자들은 이를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감정상태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4.2.5 소결

본 장에서는 이주여성한부모 당사자들 삶의 맥락에서 센터와 프로그램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술하였다. 4.2.1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자들은 경제적, 정서적, 건강 문제와 자녀 돌봄, 지지기반 부재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한 문제가 다른 문제의 원인이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문제를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한부모나 이주민으로서 지원 제도는 일정 수준 갖추었지만, 이들을 여전히 한부모와 이주민으로서만 위치시키는 사회였다. 이들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토로하였고,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삶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한부모이주여성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센터는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였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었고, 당사자가 창피해했던 경험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공유할 마음이 드는 공동체로 기능하였다. 이들은 센터에서 받는 배려와 우리 사회의 다른 주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차이점을 감각하고 있었다. 센터는 한부모와 이주여성이라는 자신들의 특수한 점을 이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주류의 전달체계에서 종종 들었던 주눅드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정, 아지트와 같은 장소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센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모두 긍정적 묘사한 반면,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보고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때때로 유익하였고 성실하게 참여했을 때 좋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참가 자체로 실질적인 자기발전 등의 변화를 꾀하거나 아주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환경에서 운영되었다. 소수지만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운영된다면 무엇이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견 역시, 프로그램 참가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무엇인가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반증하

기도 한다. 소수의 여행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장에서 한정적인 시간에 이루어졌고, 한국 생활에 이미 익숙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수준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프로그램도 다수였다. 센터는 참가자들끼리 교류를 독려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가 한부모이주여성으로 경제활동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제주도 여행을 포함하여 장시간으로 기획된 여행프로그램 이런 한계를 일부 해결하였는데, 장시간 “부대끼며” 서로를 이해할 시간, 스스로가 효능감을 느낄 만큼 무언가로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당사자의 경험은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희망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이들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 간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고, 휴식과 치유의 기회가 되는 여행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자주 언급하였다. 또한 당사자와 자녀가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제빵, 바리스타 등 구체적인 자격증 교육, 취·창업 교육을 희망하였다.

5.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진행된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방향과 운영방식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1) 이 사업의 의제와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운영된 방식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여성재단과 사업 수행기관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9년 사업을 진행한 이후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더욱 정교하게 나타나고 각 단체의 내용 역시 일정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구체화되었다.

2)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와 면접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정, 사업의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 13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센터와 프로그램이 이들의 삶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였다.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의미는 크게 세 차원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를 풍부하게 하며, 현재 이주민에 대한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적인 지원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운영에 있어서 지역조직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현장기반의 사업기획과 운영에 대한 대안적 사례를 제공한다. 셋째, 단체들과의 소통 속에서 현장에 기반한 문제설정과 해결방안을 실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참가 당사자인 한부모 이주여성의 필요에 부응하는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근거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진행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경험으로 사업이 보여주는 의미와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많은 연구나 정책보고서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험을 논의할 때,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 돌봄, 지지기반 부재로 나열되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분절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 자녀의 연령, 경제활동 유무, 건강상태 등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과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자존감 회복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도출된 하나의 의제이다. 이 목표가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들이 연결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대한 조건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평면적인 접근 일색인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사이에서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이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은 참가자의 생애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 이주여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면접참가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찰의 시간을 보낸 편이며, 전체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정도 혹은 이러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어려운 문제들은 지속되지만, 모든 한부모 이주여성이 이 어려움 속에 빠져 무기력하게만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 보고서의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논의할 때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이주시점,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2000년대 후반 초기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원정책은 다변화되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이주여성들의 생애주기 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부모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은 이주민, 여성, 한부모 가장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

과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의 필요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할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의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일방적인 대상화와 집단화에 대한 경계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혜자에 대한 대상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 집단은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하는가?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동원되었거나 대상화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거나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부모 이주여성들 간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과 우선순위 조차도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가자의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심리상담을 처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장 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참여자와의 소통과 필요를 반영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이후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자발성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이해: 실질적 필요와 전략적 이해 간의 균형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은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여성재단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은 단순히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한부모 이주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자발성과 참여자의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실질적 요구가 전략적 이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결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실제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부모 이주여성 중 일부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로 필요한 물품과 도움 때문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 자발적인 모임을 만드는 단계

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로 단체가 개입을 통해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자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여성재단과 사업수행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제안 사항이 도출되었다.

- 8)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단체의 참여는 이러한 목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9) 이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과 사업수행 기관들이 사업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단지 문서상으로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고려하여 한부모나 다문화로 특정 지어지는 집단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접근에 대한 상호이해를 전제로 한다.
- 10)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도 결정된 내용이 하향식으로 전달되어 단체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속에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어젠다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11) 앞서 제시된 두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앞서 진행된 단체들의 프로그램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 전 기획회의와 다음 사업 기획을 위한 사업 후 평가회의의 정례화를 들 수 있다.
- 12)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사업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한국여성재단과 기부처인 동서식품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모델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 13) 한 단체가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사업기간은 1년 주기로 바뀌지만, 최소 3년간 한 단체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필

요하다. 사업주기를 늘릴 수 없다면, 1년 주기의 사업을 평가에 기반해서 3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14) 현재 사업예산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는 어중간한 규모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와 사례공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혜정·이규용.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9권 2호, 49-73쪽.
- 구인회·손병돈·엄기욱·정재훈·이수연. 2009.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9권 2호, 126-150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http://www.law.go.kr/>
- 김강남. 2016.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3호, 54-84쪽.
- 김기화. 2021. 「한부모 이주여성의 가족해체와 자립 과정에 관한 연구: 자립지원시설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0권, 305-351쪽.
- 김복태·최천근. 2020.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실태 및 결정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30권 3호, 85-107쪽.
- 김선숙·왕경수. 2021.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 후 자립에 대한 사례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8권 4호, 103-118쪽.
- 김승권 외. 2010.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선. 2011. 「결혼 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2권, 107-141쪽.
- 김영혜. 2017.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이혼에 관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이선·이아름·황정미. 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제92권 205-246쪽.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제70권, 10-37쪽.
- 김현숙·김희재. 2016.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6권 1호, 55-91쪽.

- 남지민. 2012.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 정책 방안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1권 1호, 255-277쪽.
- 문순영. 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제72권 1호, 109-142쪽.
- 박미정. 2015.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행위의 주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기」, <<한국가족복지학>>, 제20권 2호, 273-294쪽.
- 박송이·강혜린·문영민. 2020. 「베트남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제2권 1호, 59-86쪽.
- 보건복지부. 2012. 『2012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성남YWCA. 2019.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성남YWCA.
- 성남YWCA. 2021.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성남YWCA.
- 설동훈. 2013. 「국제이민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1호, 21-50쪽.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정책 방안」, 미래인력연구원.
- 성지혜. 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8권 1호, 83-115쪽.
- 심인선. 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65호, 36-45쪽.
- 성향숙. 20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4호, 25-43쪽.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2020.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아시아이주여성센터.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2021.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아시아이주여성센터.
- 안수영·임우연. 2011. 「대전 지역 결혼이민자의 일 경험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7권 3호, 49-69쪽.
- 양인숙·민무숙.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인숙·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

- 경제연구>>, 제34권 1호, 237-266쪽.
- 어경준. 2021. 「한부모 모자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다 문화교육>>, 제10권 1호, 159-186쪽.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여성가족부. 2022a.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2022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오혜정. 2017.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57권, 39-67쪽.
- 우명숙·이나영. 2013.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제47권 5호, 139-169쪽.
- 유은주. 2010. 「내가 시집을 온 건가, 일을 하러 온 건가」,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1호, 199-245쪽.
- 이선주 외.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2008 연구보고서-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선형. 2013.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오복. 2013. 「가족의 지원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권 3호, 1-18쪽.
- 이용재·배화숙. 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권 4호, 479-504쪽.
- 이정희·이수분.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 1호, 141-159쪽.
- 이춘양. 2021.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제40

권 5호, 258-298쪽.

임춘희. 2014.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3권 6호, 1049-1069쪽.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권 3호, 63-90쪽

전기택 외. 2013.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기선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7-02 정책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지윤.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부모가정에 관한 고찰」, <<한국한부모가정학>>, 제4권 1호, 21-36쪽.

장명선. 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지역적 특색에 따른 모델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혜숙 외.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020.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021.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최수안·김영순. 2021.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여성학연구>>, 제31권 1호, 7-39쪽.

최윤정 외. 2022.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가은. 2021.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부모 여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한국여성재단. 2019.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 2020.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 2021.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한국이주여성

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0.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1.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권 4호, 111-143쪽

허오영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송금, 가족 초청』, 한울아카데미

별첨

별첨1. 기관장 및 사업 담당자 면접 가이드

[기관장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 가이드]

Q 1. 단체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현재 단체가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각각의 프로그램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Q 2. 귀 단체가 이주여성한부모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여자들의 어떤 부분의 역량강화를 목표로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나요?

Q 3. (귀 단체가 운영하는 혹은 다른 조직에서 운영하는) 다른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한국여성재단의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 방향성, 프로그램의 내용, 재단과 운영단체와의 관계, 운영체계)

Q 4. 현장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속가능성, 비전, 자원마련, 인적자원, 운영시스템, 결혼이민자와 의사소통 등)

별첨2. 당사자 인터뷰

들어가며

-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 익명성, 비밀 보장에 대한 원칙, 동의서 작성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 정보 (5분 내외)

- 이름, 나이(생년, 월), 사는 곳, 가족 구성원, 삶에서 가깝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
- 이주하게 된 경로 시기
- 한부모가 된 경로 시기
- 현/전 직업, 계약 형태, 소득과 재산, 주거지 자가 여부
-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양육 기여도, 양육비 지급 여부, 자녀 및 본인과 접촉 빈도, 비양육부모의 이혼전/현 소득과 직장, 재혼여부와 새로운 가족구성, 다른 아동 양육여부), 본인/전남편의 일가족과의 관계

주제 1: 이주여성한부모로서 삶과 경험 (삶의 질)

- 한국 사회와 결혼생활 경험
 - 나의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 이 사회는 당신에게 어떤 사회인가요?
-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한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주여성이나 한부모 가족이라는 지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요?)
- 내 삶의 전반에 질을 평가한다면?
 - 일과 경제적 부분
 - 유대관계 (모국의 가족, 한국의 가족, 아이, 친척, 동료집단, 친구)
 - 정체성 (주위사람들에게 이주여성, 한부모 드러내기)
 - 일상생활 대응 및 처리(자녀를 위한 타인과 소통- 진료 등, 인터넷 접속 등 일상생활 및 복지 정보 확인, 아동 돌봄 - 누가 함께 돌보나요?)

주제 2: 역량 의미

- 나에게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상이 있다면?
- 어려움을 느꼈는데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나요? 이런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나요?

주제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경험

- 지금까지 참여한 지원 프로그램을 나열해주세요.
- 제도권 서비스 수급 경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기존 제도권 수급 경험과
느낌(기분)
 - 불쾌하거나 불편했던 경험인가요?
 - 이 경험으로 한국 사회나 법(정치인, 공무원, 법, 정책)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요?
- 민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경험
 - 2022년 경험을 기준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 무엇을 얻으셨나요?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 앞으로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 불편하거나 불쾌한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 이 경험으로 한국 사회나 법(정치인, 공무원, 법, 정책)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요?

나가며

-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 더하고 싶은 부분?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점

별첨3. 당사자 인터뷰 동의서 양식

서식 3-1.

Ver. 2.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 기본정보			
연구대상자	이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IRB 승인번호	1041849-202208-SB-151-01		
연구책임자	이름	이현옥	연락처(전화번호) 0337602321
연구제목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과 실제: 지원사업 참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내용			
<p>귀하는 연구자 이현옥 교수, 전미양 교수 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나 단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시기 전에 귀하의 가족 또는 지인과 상의가 가능합니다.</p> <p>※ 실험 시작 전 연구자와 이해상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p> <p>1. 왜 이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삶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p> </div> <p>2. 연구대상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연구 대상자는 연구진(이현옥, 전미양) 중 1인 또는 2인과 최소 1시간 30분 최대 2시간 정도의 인터뷰 참여를 통해 본인의 삶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p> <p>연구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한국에서 보낸 기간과 직업의 유무, 출신 국가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정되었습니다.</p> </div> <p>3.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를 위해 방문해야 하는 횟수, 시간, 기간은 어떠합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를 위해 직접 방문한 연구진을 1회 최대 2시간 인터뷰(면접)에 참여합니다. 다만, 인터뷰(면접) 후에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 동의하에 비대면의 방법(전화, 온라인 인터뷰)으로 최대 1회, 30분~1시간의 의 추가 인터뷰(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자의 계속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질 경우, 이를 적시에 연구대상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연구 도중 연구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 참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경제적 보상)는 무엇입니까?

연구에 참여에 대한 사례로 현금 3만원을 당일 지급드립니다.

5. 연구 참여 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대상자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 우울함 등이 유발되거나 인터뷰(면접) 도중 개인적인 상처 혹은 트라우마에 의해 감정적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멈출 수 있습니다.

6. 연구대상자의 실험참여로 인한 부상 또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귀하가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인터뷰(면접)를 중지합니다. 면접 이후 심리적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033-760-2321), 심리상담 기관을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점으로는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사례비(현금 3만원)를 제공합니다. 기타 직접적인 이득은 제공되지 않으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추후 결혼이주 한부모를 위한 사업 혹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참여자의 경우, 면접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이나 삶을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거나, 마음이 후련해지는 등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 등의 개인정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자료는 폐기됩니다. 해당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컴퓨터에 보관되며, 이현옥 연구책임자와 전미양 공동연구자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귀하의 이름 및 기타 정보)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시 절차 및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모니터 요원 및 점검요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 및 관련 규정이 안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9. 연구 참여와 관련된 문제나 질문은 누구에게 합니까?

본 실험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이현옥의 전화(☎033-760-2321) 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실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033-760-52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 연구대상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는 그 정보의 보관 기간 이내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33-760-5247)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연구대상자가 알아야 할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 내용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귀하의 서명이 완료된 본 동의서의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연구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과 실제: 지원사업 참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에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참여 중단이 가능합니다.)

※ 법적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법적대리인의 관계(예: 친권자(부·모) / 후견인 등)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구대상자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 서명)

연구대상자와 법적대리인의 관계: _____ (해당시에만 기재 바랍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있는 동의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승인번호 1041849-202208-SB-151-0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 기본정보				
연구대상자	이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IRB 승인번호	1041849-202208-SB-151-01			
연구책임자	이름	이현옥	연락처(전화번호)	0337602321
연구제목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과 실제: 지원사업 참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내용				
<p>귀하는 연구자 이현옥 교수, 전미양 교수 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나 단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시기 전에 귀하의 가족 또는 지인과 상의가 가능합니다.</p> <p>※ 실험 시작 전 연구자와 이해상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p> <p>1. 왜 이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삶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p> </div> <p>2. 연구대상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연구 대상자는 연구진(이현옥, 전미양) 중 1인 또는 2인과 최소 1시간 30분 최대 2시간 정도의 인터뷰 참여를 통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역량 분야, 기관 프로그램의 차별성, 담당자로서의 고충 등을 들려주시면 됩니다.</p> <p>연구 대상자는 총 8명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담당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p> </div> <p>3.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를 위해 방문해야 하는 횟수, 시간, 기간은 어떠합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를 연구진을 1회 최대 2시간, 온라인(Zoom)을 통해 인터뷰(면접)에 참여합니다. 다만, 인터뷰(면접) 후에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 동의하에 비대면의 방법(전화, 온라인 인터뷰)으로 최대 1회, 30분~1시간의 의 추가 인터뷰(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자의 계속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질 경우, 이를 적시에 연구대상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연구 도중 연구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 참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경제적 보상)는 무엇입니까?

연구에 참여에 대한 사례로 현금 3만원을 당일 지급드립니다.

5. 연구 참여 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대상자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 우울함 등이 유발되거나 인터뷰(면접) 도중 개인적인 상처 혹은 트라우마에 의해 감정적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멈출 수 있습니다.

6. 연구대상자의 실험참여로 인한 부상 또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귀하가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인터뷰(면접)를 중지합니다. 면접 이후 심리적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033-760-2321), 심리상담 기관을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점으로는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사례비(현금 3만원)를 제공합니다. 기타 직접적인 이득은 제공되지 않으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추후 결혼이주 한부모를 위한 사업 혹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참여자의 경우, 면접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이나 삶을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거나, 마음이 후련해지는 등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 등의 개인정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자료는 폐기됩니다. 해당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컴퓨터에 보관되며, 이현옥 연구책임자와 전미양 공동연구자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귀하의 이름 및 기타 정보)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시 절차 및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모니터 요원 및 점검요원,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 및 관련 규정이 안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연구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9. 연구 참여와 관련된 문제나 질문은 누구에게 합니까?

본 실험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이현옥의 전화(☎033-760-2321) 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실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033-760-52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 연구대상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는 그 정보의 보관 기간 이내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33-760-5247)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연구대상자가 알아야 할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 내용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귀하의 서명이 완료된 본 동의서의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연구 <한부모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과 실제: 지원사업 참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에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였다라도 언제든지 참여 중단이 가능합니다.)

※ 법적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법적대리인의 관계(예: 친권자(부·모) / 후견인 등)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구대상자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 서명)
 연구대상자와 법적대리인의 관계: _____ (해당시에만 기재 바랍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있는 동의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승인번호 1041849-202208-SB-151-0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